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楊 普 景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18세기 후반 물기재 강응환의  
관방지도에 관한 연구

2010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地理教育專攻

金 柳 京

# 18세기 후반 물기재 강응환의 관방지도에 관한 연구

楊普景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地理教育專攻

金 柳 京

# 認 准 書

金柳京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 論 文 概 要

17세기 전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킨 여진족이 1644년 중국을 정복하고 청나라를 건설한 이후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연속되자 조선은 청의 만주 회귀에 대한 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청나라와의 국경지대, 그리고 만주지역에 대한 관심 및 지리정보 파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관방지도의 제작은 조선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쪽 변경 지방의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대청 인식과 북방인식 변화가 관방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새로운 관방정책은 평안도와 함경도지역의 관방시설 확충으로 연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관방지도가 제작되었다.

본 논문은 18세기 후반에 평안도 창성부사와 경상좌도수군절도사를 지낸 물기재 강응환(姜膺煥, 1735~1795)이 제작한 관방지도(關防地圖)인 《청북변성도(淸北邊城圖)》와 《고려중요처도(高麗重要處圖)》의 형태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도에 표현된 지형, 형태, 크기, 지명, 촌락, 군사적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18세기의 사회적 변화와 대외관계를 통해서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강응환의 관방지도를 검토하였다.

강응환의 관방지도들은 창성부사와 경상좌도수군절도사라는 현직에 있던 최고 담당자가 제작한 원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영조대의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서북계도(西北界圖)》 《성경여지전도(盛京輿地全圖)》 등과 같이 조선의 국경지대와 만주일대를 개괄적으로 그린 군사지도로부터 한 단계 진전되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군사적 요충지를 그린 미시적 지도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지도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전하는 지도가 매우 귀하기 때문에 강응환의 지도들은 관방지도의 역사에서, 그리고 조선후기의 군사정책과 관방인식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목 차

### 論文概要

I.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2
II. 강응환의 지도 제작 배경 .....	3
1. 18세기 후반의 사회적 변화 .....	3
2. 강응환의 생애와 업적 .....	9
3. 강응환의 관방지도 제작배경 .....	15
III. 《淸北邊城圖》의 구성과 내용 .....	30
1. 지도의 구성과 형태 .....	30
2. 지도 내용의 분석 .....	33
IV. 《高麗重要處圖》의 구성과 내용 .....	46
1. 지도의 구성과 형태 .....	46
2. 지도 내용의 분석 .....	48
V. 결론 .....	62

### 參考文獻

### ABSTRACT(영문초록)

## 표 목 차

[표 2] 강응환이 받은 교지류 .....	10
[표 3-1] 《淸北邊城圖》의 지도 구성 .....	32
[표 3-2] 《淸北邊城圖》 제2쪽에 기록된 진보의 위치 및 규모 .....	35
[표 3-3] 《淸北邊城圖》 제3쪽 삭주 소속 진보의 위치 및 규모 .....	37
[표 3-4] 《淸北邊城圖》 제5쪽 창성의 진보의 위치 및 규모 .....	39
[표 4-1] 《高麗重要處圖》의 제1쪽 남해, 거제의 진보 .....	49
[표 4-2] 《高麗重要處圖》의 제14쪽 영해, 흥해, 연일, 장기의 진보 .....	53
[표 4-3] 《高麗重要處圖》의 제15쪽 경주~진해의 진보 .....	56
[표 4-4] 《高麗重要處圖》의 제16쪽 고성~곤양의 진보 .....	59

## 그 립 목 차

[그림 2-1]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요계관방지도》 중 제1폭~제4폭 .....	7
[그림 2-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	19
[그림 3-1] 《淸北邊城圖》의 전체 사진 .....	31
[그림 3-2] 《淸北邊城圖》 제1폭 · 제2폭 .....	36
[그림 3-3] 《淸北邊城圖》 제3폭 · 제4폭 .....	38
[그림 3-4] 《淸北邊城圖》 제5폭 · 제6폭 .....	41
[그림 3-5] 《淸北邊城圖》 제7폭 · 제8폭 .....	42
[그림 3-6] 《淸北邊城圖》 제9폭 · 제10폭 .....	43
[그림 3-7] 《淸北邊城圖》 제11폭 · 제12폭 .....	45
[그림 4-1] 《高麗重要處圖》의 전체 사진 .....	47
[그림 4-2] 《高麗重要處圖》 제1폭 ~ 제4폭 .....	50
[그림 4-3] 《高麗重要處圖》 제5폭 ~ 제8폭 .....	51
[그림 4-4] 《高麗重要處圖》 제9폭 ~ 제12폭 .....	51
[그림 4-5] 《高麗重要處圖》 제13폭 ~ 제16폭 .....	60

## I. 서론

### 1. 연구목적

17세기의 국가적인 위기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에 대한 위기감은 국경을 넘어 정치적, 정책적 측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바뀌어갔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18세기 북방인식에 변화와 관방정책의 변화로 이어졌다. 17세기 초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일으킨 만주국이 1644년 중국을 정복하고 청나라를 건설한 이후 중국 각지에서 반란이 연속되자 조선은 청의 만주 회귀에 대한 위기의식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청나라와의 국경지대, 그리고 만주지역에 대한 관심 및 지리정보 파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관방정책의 새로운 인식과 관방정책의 다양성이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방지역의 관방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706년 숙종대에 남구만이 수입한 『성경지』, 이이명이 제작한 《요계관방지도》는 조선이 자체적으로 축적해 왔던 국경지대에 대한 정보에 큰 영향을 준 새로운 지리 지식이었다. 이어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서북계도》, 《성경여지전도》 등이 제작되어, 북방영토와 국경지대를 이해하는 체계적인 정보들을 지도로 가시화했다.

본 논문은 18세기 후반에 물기재 강응환(姜膺煥, 1735~1795)이 제작한 정밀한 관방지도를 당대의 사회적 변화와 대외관계의 변화 속에서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강응환의 생애, 업적, 가문 등을 먼저 파악하고 이어서 관방지도를 제작한 배경을 조선 후기의 전통 속에서 고찰해보았다. 강응환이 제작한 대표적 관방지도인 《청북변성도(淸北邊城圖)》와 《고려중요처도(高麗重要處圖)》의 형태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도에 표현된 지형, 형태, 크지, 지명, 촌락, 군사적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강응환이 제작한 관방지도인 《청북변성도》와 《고려중요처도》는 『한국의 고

지도』에 도판과 간략한 해설이 수록되어 그 존재는 알려져 있었다.<sup>1)</sup> 그러나 두 지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았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관방지도의 제작 속에서 강응환의 지도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강응환의 생애의 업적, 그리고 조선시대의 관방지도에 대한 문헌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문헌을 통해 현존하고 있는 관방지도 제작의 배경과 목적, 사회적인 인식을 파악해 보았다. 강응환이 제작한 관방지도의 독해를 위해 지명과 주기 및 설명을 전부 추출해 분석해서 두 지도의 제작 대상지역인 평안도와 경상도의 지명과 지역의 규모 등을 고찰하였다. 강응환의 관방지도를 연구 분석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강응환이 제작한 관방지도의 형태상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둘째, 강응환이 제작한 관방지도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강응환이 제작한 관방지도에 대한 의미를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방지도에 대한 형태와 내용 이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18세기 후반 강응환이 제작한 관방지도에 대한 목적과 관방지도의 용도, 관방지도를 왜 제작하게 되었는지, 관방지도를 제작할 당시의 사회적인 영토의식의 변화 등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pp.56-61, pp.70-77, pp.383-385.

이 책에는 《고려중요처도(高麗重要處圖)》의 지도 제목을 지도의 내용에 적합하게 《영남연해형편도(嶺南沿海形便圖)》로 변경해 수록하였다. 현재 이 지도들은 강응환의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4년전 도난당했다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노력으로 2009년 3월 회수되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II. 강응환의 지도 제작 배경

### 1. 18세기 후반의 사회적 변화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경험한 조선은 국방시설과 관방지도 제작에 관심을 기울였다. 각종 군사시설의 설치와 함께 군사적 방어의역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했는데 그 지도가 즉 관방지도<sup>1)</sup>이다. 18세기 조선은 국제관계, 국내사회의 변화가 주목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북방지역의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sup>2)</sup> 북방지역과 한양 주변 지역, 산성의 축성사업, 해안지역의 수군기지 설치로 군사적인 지도 제작이 활발해졌다. 조선전기 지도와 후기 지도의 큰 차이점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계가 정확해 만주지방에 대한 지식이 깊어진 것이다.<sup>3)</sup> 이는 조선 후기의 활발한 군사용 지도 즉 관방지도의 제작에 힘입은 것이다. 임진왜란 중인 1592년(선조 25) 유성룡(柳成龍)은 평양진공을 위해서 도로지도를, 다음해에는 평양지도를 제작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1603년(선조 36) 이후 산성은 한양의 동남방에 위치해 서울을 방어했으며, 유사시에는 인조, 숙종, 영조, 정조대에 걸쳐 임금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축(修築)공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정밀한 지도가 제작되어 진상되었다. 광해군대는 여진족의 사태와 관련해서 북방의 경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유사시의 피난처로 강화도에 대한 관심도 커져 갔다. 광해군대의 국방정책과 관방지도는 정묘호란 직후 1627년(인조 5)에 김류(金瑬)가 제작한

---

1) 국경 부근이나 산지의 고갯길과 같은 요충지에 관문을 설치하고 방어하는 것을 관방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관방시설을 그린 지도를 관방지도(關防地圖)라 하지만, 군사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를 통칭해 관방지도라 일컫는다.

2) 배우성, 1996, 18세기 관찬지도 제작과 지리 인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한영우, 1999,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 p.48.

《양서관방지도(兩西關防地圖)》를 시작으로 1638년(인조 16) 판중추부사 김신국(金薰國)의 《강화도지도》와 1639년(인조 17) 경상도 관찰사 이명웅의 《금오산성도(金烏山城圖)》<sup>4)</sup>, 공산(公山), 독음산(禿音山), 가산(架山)의 산성도 등 일련의 지도들을 제작하였다. 효종, 현종대의 관방지도와 남구만이 제작한 변경지역 지도들은 북벌론 시대의 ‘내수외양(內修外攘)’과 국방강화와 관련된 산물이었다. 1673년(현종 14) 함경감사이던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별해보(別害堡)와 후주진(厚州鎭)을 설치하고, 변경방어를 위해 《함경지도》를 제작해 관방요해처(關方要害處)를 상세히 표시하였다<sup>5)</sup>. 또한 남구만은 청나라의 《성경지(盛京志)》를 바탕으로 《여지전도(輿地全圖)》를 모사하여 제작하였다.<sup>6)</sup>

숙종대에 들어와 소강상태였던 북방정책은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개발로 국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폭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성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1676년(숙종 2) 개성부성과 개성 북쪽의 대흥산성(大興山城)이 축조되고, 평안도 용강(龍岡)의 황룡산성(黃龍山城)이 수축(修築)되었다. 1679년(숙종 5)에는 강화도에 48좌(坐)의 돈대(墩臺, 망루 겸 진지)가 축조되었다. 1675년(숙종 1) 훈련대장 유혁연(柳赫然)이 개성, 강화, 과주지역의 지도<sup>7)</sup>와 같은 해 오시수(吳始壽)의 《강화지도》를 제작하였고, 1678년(숙종 4) 《강화지도》는 병조판서 김석주(金錫胄)나 강화유수 이원정(李元禎)에 의해서도 바쳐졌다.<sup>8)</sup> 1679년 강화도에 돈대가 완성된 후에는 김석주가 48좌의 돈대를 그려 족자로 만들어 진상하였다.<sup>9)</sup> 1679년(숙종 5) 남인과의 영수 허적(許積)도 지도를 바쳤다. 이 지도는 북병사(北兵使) 유비연(柳悲然)이 청천강 이북의 여러 읍과 6진, 삼수갑산, 그리고 함흥에 이르는 여러 읍과 압록강 북쪽

4) 인조실록, 권 38, 인조 17년 6월 을사.

5) 현종실록, 권21, 현종 14년 12월 을축.

6) 남구만, 약천집(藥泉集) 권28, 성경여지도기(盛京輿地圖記).

7) 숙종실록 권3, 숙종 원년 5월 계미.

8) 숙종실록 권7, 숙종 4년 10월 경인.

9) 숙종실록 권8, 숙종 5년 6월 기묘.

오국성(五國城, 지금의 집안(集安)지역)의 여진 등지를 그린 일폭 장지의 도첩(圖帖)이었다.<sup>10)</sup> 관방지도의 제작은 서인이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도 청나라의 내란에 대비한 북방 경비강화로 남구만은 안주(安州), 박천(博川), 의주(義州), 정주(定州)에 평안도의 개척사업을 추진하였다.<sup>11)</sup> 북방의 중요한 요새지는 평안도 영변(寧邊)이었다. 예로부터 이곳은 성이 몇 겹으로 쌓여 있는데 1638년(숙종 9) 김석주의 건의로 수축하고 대포도 비치하였던 곳이다. 이 성은 철옹산성(鐵壘山城)으로 그 둘레가 27리가 된다.<sup>12)</sup> 1685년(숙종 11)에는 도성방어 강화를 위해 북한산이 수축되기도 하였다. 이어 도성의 동남쪽 방어를 위해 1686년(숙종 12) 광주유수(廣州留守) 윤지선(尹趾善)의 건의로 남한산성에 봉안성(蜂岸城)이 축조됨과 동시에 성기(城基)에 대한 지도도 제작되었다.<sup>13)</sup>

또한 1687년 강원도관찰사 이이명(李頤命)이 10리 획정법을 이용하여 《관동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획정지도는 남구만의 《함경지도》와 《성경지도(盛京地圖)》에 이은 두 번째 시도였다. 이 지도는 도리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거리를 물으면서 이이명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여 비교적 정밀하게 제작한 지도이다. 그는 1706년에 관방지도로 유명한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를 제작하였다. 1690년에 『동사변증(東史辨證)』이라는 역사서를 남겨 역사 지리학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1696년(숙종 22)에 다시금 폐사군(廢四郡) 복치(復置) 논의가 대두되어 압록강 하류의 섬들에 대한 개간이 허용되었다.<sup>14)</sup> 《해서오성지도(海西五城地圖)》는 해주(海州)의 수양산(首陽山)과 은울(殷

10) 숙종실록 권8, 숙종 5년 12월 갑술.

11) 비변사등록 제38책, 숙종 10년 2월 16일.

12) 숙종실록 권16, 숙종 11년 2월 경신.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된 “철옹성전도”가 소장되어 있다. 그림은 아름다운 산수화를 보는 듯 아름답다. 민족시인인 김소월이 영변 약산동대의 진달래를 노래한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13) 비변사등록 제40책, 숙종 12년 4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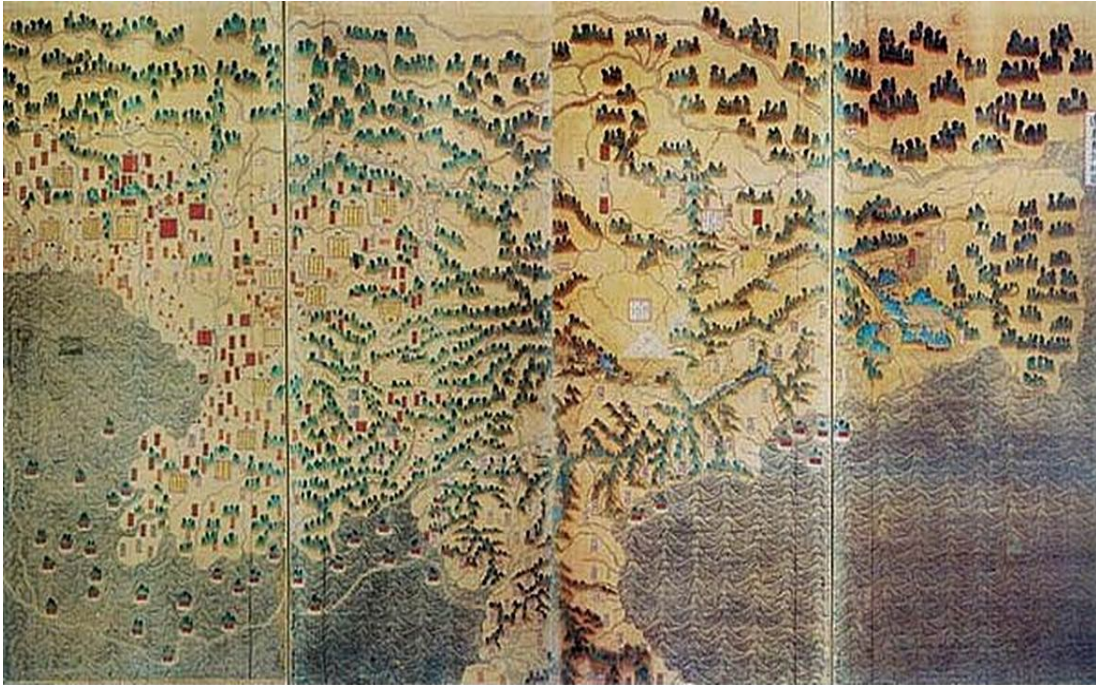
14) 숙종실록 권30, 숙종 22년 3월 기미.

栗)의 구월산(九月山), 서흥(瑞興)의 대현(大峴), 재령(載寧)의 장수산(長壽山), 그리고 황주(黃州)의 정방산성(正方山城)을 그린 것으로 도리의 멀고 가까움, 속현은 많고 적음, 고사(庫舍), 관해(官廩), 군자(軍資), 기계(器械), 치첩(雉堞), 정천(井泉), 승민(僧民)과 부장의 수까지 자세하게 기록했다. 이 지도는 화공의 손으로 그려졌고 책자의 형태로 꾸며져 황해도의 관방지도 중에서도 매우 정교하다.<sup>15)</sup> 남구만의 《성경지도》 제작은 압록강 및 두만강 지역의 영토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 우리 영토뿐만 아니라 만주 지방의 지리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구만의 《성경지도》는 영조대에 그려진 여러 종의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의 모본이 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다.<sup>16)</sup> 남구만이 《성경지도》를 바친 그 다음 해에 청나라는 원수를 보내 회령에서 경원에 이르는 함경도 북방지역의 진보(鎭堡), 산천, 성지(城池)를 그려 갔다.<sup>17)</sup> 1701년(숙종 27) 압록강을 측량하여 조선 조정을 긴장시키기도 하였다. 조선과 청 사이의 첩보전도 치열하였으며, 북방 국경지역을 둘러싼 인삼채취 즉 채삼(採蔘) 문제로 국경분쟁은 조선 측이 오히려 공세적인 자세로 만주에 진출하는 흐름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15) 숙종실록 권30, 숙종 22년 12월 정미.

16) 여진족의 첫 수도였던 심양 즉, 성경지역에 대한 지도 및 지리정보는 정조 때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수입하기 이전까지는 남구만의 《성경지도(盛京地圖)》가 토대가 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약칭함)에는 영조 때 제작된 여러 본의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가 소장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남구만의 여러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조대 이후 제작된 성경지역 지도는 “고금도서집성”의 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여지도》(고4709-78)의 중국 각성도(各省圖) 부분, 《곤여도(坤輿圖)》(고4709-85)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17) 숙종실록 권32, 하(하), 숙종 24년 12월 기미.



[그림 2-1]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 총 제10폭 중 제1폭~제4폭.  
이이명. 보물 제1542호. 彩色寫本. 139cm×635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이 제작한 《요계관방지도》<sup>18)</sup>의 요계는 요동과 북경지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요동에서 북경에 이르는 군사형세도를 그린 지도라는 뜻이다. 이 지도는 이이명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명말의 학자가 쓴 『주승필람(籌勝必覽)』과 청나라 사람이 그린 《산동해방지도(山東海防地圖)》를 가져와 화사(畫師)가 제작한 편집도이다. 원본은 작고 이를 급하게 묘사한<sup>19)</sup> 까닭에 그림이 정밀하지 못하여 『성경지』 등을 추가해 10폭 병풍으로 확대하여 정확하게 제작한 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이 병풍지도는 크기에서나 예술성과 정확성이 지도에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이 중국 관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7세기 후반부터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초미의 관심사이자 갈등의 대상이었던 국경 확정의 문제가 1712년(숙종 38)에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지역에 둘러싼 갈등으로 백두산 아래에 정계비를 세움으로써 일단락되었다.<sup>20)</sup> 정계비(定界碑)에는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이라 하여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土門江)으로 국경을 정했다. 정계비 설치 이후에 그려진 지도들은 대부분 두만강과 토문강이 표시가 구별되어 북방지역에 대한 정보가 증가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청의 ‘영고탑회귀설’로 촉발된 북방지역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관심은 17세기 후반 이후 백두산정계비 문제로 강화되었다. 또한 북방지역의 인구증가와 지역개발, 이 지역의 각종 광물 및 임산자원의 활용과 같은 지역 자체의 성장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 북방지역의 지리정보의 파악, 북방지역 지도제작과 지도제작의 정확성 증가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

18) 《요계관방지도》, 이이명, 1706년, 139×635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9) 숙종실록 권41, 숙종 31년 4월 계유, 숙종실록 권43, 숙종 32년 1월 신미.

20) 백두산정계비 설치를 둘러싼 교섭 과정은 이상태, 1993, 백두산정계비 설치에 관한 연구, 역사와 실학, pp.87~119; 강석화, 1995, 1712년 조청정계와 18세기 조선의 북방경영에 대하여, 진단학보 79호, pp.121~132. 참조.

다.<sup>21)</sup>

## 2. 물기재 강응환의 생애와 업적

물기재(勿欺齋)<sup>22)</sup> 강응환(姜膺煥, 1735~1795)은 영조 11년(1735) 현재의 전라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에서 출생했다. 고창군 성송면은 당시 행정구역상 전라도 무장현에 속한다. 강응환의 본관은 진주로 '암치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강씨'라는 뜻으로 '암치 강씨'로 불린다. 가문은 대대로 중앙정계에서 활약한 문반의 집안이다. 강응환은 동래 해운포에서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를 지내 강수사공(姜水使公)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국문학계에서 연구된 바가 있다.<sup>23)</sup> 강응환의 고가에는 그가 생전(生前)에 사용하던 수택품(手澤品)과 그가 받은 많은 교지(教旨), 유서(諭書), 정조대왕이 하사한 초상화 등이 보존되어 있다. 교지로는 강응환에게 내려진 건륭 35년(영조 46, 경인 1770) 무과홍패(武科紅牌)부터 건륭 60년(정조19, 기묘, 1795)의 가선대부 교지까지 보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

21) 양보경, 1997, 조선시대의 고지도와 북방인식, 지리학연구, 제29집, 한국지리교육학회, pp.103~122.

양보경, 2005, 국토의 수호자, 관방지도, 測量, 5·6, 대한측량협회, pp.44-51,  
22) 勿欺齋란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무릇 사람의 행실 중에서 속이는 일처럼 큰 것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속여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속여서는 안 될 상대가 세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하늘이요, 인군이요, 신으로 일관된 것으로서 이는 그의 行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3) 송준호, 1987,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pp. 376~419.

강응환의 생애와 업적은 위의 책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표 2] 강응환이 받은 교지류<sup>24)</sup>

發行年月	연령	官階 및 官職
乾隆 35 (英祖 46, 庚寅, 1770) 12月	36	武科及第
乾隆 41 (英祖 52, 丙申, 1776) 6月	42	秉節校尉龍驤衛右部將
乾隆 42 (正祖 1, 丁酉, 1777) 9月	43	宣略將軍行龍驤衛右部將
乾隆 43 (正祖 2, 戊戌, 1778) 7月	44	朝奉大夫行通禮院引儀
乾隆 43 (正祖 2, 戊戌, 1778) 12月	44	通訓大夫行司憲府監察
乾隆 44 (正祖 3, 己亥, 1779) 7月	45	通訓大夫行漆原縣監
乾隆 48 (正祖 7, 癸卯, 1783) 5月	49	通訓大夫行草溪郡守
乾隆 52 (正祖 11, 丁未, 1787) 11月	53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護大丘營將
乾隆 53 (正祖 12, 戊申, 1788) 6月	54	<u>折衝將軍行高嶺鎮兵馬僉節制使</u>
乾隆 55 (正祖 14, 庚戌, 1790) 7月	56	<u>通政大夫行昌城都護府使</u>
乾隆 57 (正祖 16, 壬子, 1792) 9月	58	<u>折衝將軍慶尙左道水軍節度使</u>
乾隆 60 (正祖 19, 己卯, 1795) 1月	61	嘉善大夫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강응환은 서반직(西班職)에서 관직생활을 보냈고, 군직과 관계된 것이 비교적 많았다. 그가 함경도 고령진첨절제사(高嶺鎮僉節制使)로 있을 때 사용한 ‘고령진병마사령(高嶺鎮兵馬司令嶺)’,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로 있을 때 사용하던 ‘영좌수군사령(嶺左水軍司令)’이라는 기명(旗名) 등이 중요한 유물들로 전한다.<sup>25)</sup>

24) 정조 9년 12월 강응환이 대구영장으로 임명, 그 후 (정조 11년) 11월에 동직으로 임명, 단 처음 것은 교지로 전하지 않는다.

25) 기의 크기는 사령기가 가로 46.0cm, 세로 39.5cm, 사명기가 가로 47.5cm, 세로

강응환과 그의 아들은 전라도 무장(茂長)에서 태어나 지방관서를 지낸 무관(武官)이었다. 강응환의 11대조인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은 세조 때부터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문신이었고, 강희맹의 부(父) 석덕(碩德)은 학행, 그리고 고조(高祖) 군보(君寶) 모두 다 문과를 거쳐 각각 관계(官界)에 들어가 중앙에서 활약하였다. 강희맹의 형인 강희순과 아들 귀손, 귀손의 양자 아들인 태수 등 모두 문과출신이었다. 중앙에서 활약한 태수의 자손 중에서도 문과자가 12명이나 나왔다. 강응환의 10대조는 귀손(龜孫)의 동생인 강희맹(姜希孟)의 둘째 아들인 강학손(姜鶴孫)이며, 귀손(龜孫)의 양자(養子)인 태수(台壽)는 강학손(姜鶴孫)의 셋째 아들이다. 강학손은 통훈대부행강계부호부판관(通訓大夫 行江界部護府判官)에까지 오른 사람으로 강계공(姜界公)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의 후손들은 『진주강씨강계공파세보』를 따로 만들었다고 한다.<sup>26)</sup>

16세기 초 연산군대에 왕의 비위를 거슬러 태수를 제외한 집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라도 영광(靈光) 외 각 지방으로 분산되어 유배 또는 낙향을 하였다. 강응환의 집안은 그의 6대조 강계오(姜繼吳, 1563~1616) 때에 영광으로부터 다시 무장으로 이거했으며, 이는 1921년 『무장읍지(茂長邑誌)』 성씨조(姓氏條)에 기록되어 있다. 강응환의 10대조인 사평공(司評公) 강학손(姜鶴孫)을 정점으로 선조 26년(1593) 학손(鶴孫)의 4대손인 강항(姜沆)과, 효종 3년(1652년)에 5대손 시경(時愷)이, 효종 7년에는 6대손 강필주(姜弼周)가 각각 문과에 급제하였다. 강항(姜沆)은 호가 수은(睡隱)으로 정유재란 때 활약하다 해상에서 왜군(倭軍)에게 붙들려 일본으로 압송되어 3년 후인 선조 33년(1600)에 석방되어 돌아왔다. 그는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일본의 지

55.0cm이다.

26) “진주강씨보(晋州姜氏譜)”에서 학손(鶴孫)을 찾아보면, “경진을해생 성화경자생원 장예원사평 이평양 판관오당로 과적영광계미줄(景秦乙亥生 成化庚子生員 掌隸院司評 以平壤判官忤當路 罷謫靈光癸未卒)”이라고 나온다. 16세기 초 평양판관(平壤判官) 시절 조정의 비위를 건드려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를 갔다.

리, 제도, 형세 등을 일일이 기록해 『간양록(看羊錄)』을 저술하였다. 강응환은 강항의 숙부의 7대손이다. 영광출신의 강필주 양부인 시언은 그의 종숙이 되는 수은공 강항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삼난거의지사(三亂擧義之士)’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강응환의 3대 즉, 부(父), 조(祖), 증(曾) 사이에는 과거출신자나 입사자는 없었으나, 사부가(士夫家) 후예로서 전통적인 학식과 예절을 갖추고 조정 정치의 동향에도 관심을 갖는 생활을 하였다.

강응환의 증조(曾祖) 민저(敏著, 1651~1705)는 호가 모산으로 『모산집(矛山集)』이 전해지고 있다. 현종 4년(1663) 그의 나이 13세 때 승문원 부정자(承文院 副正字)로 입경(入京)하는 아버지 필주(弼周)를 따라 서울과 문신 문곡(文谷)의 문하에 자주 왕래하였다. 강민저는 우국충군의 일념에 불타는 한유생으로서 궁중 및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데에 매우 과감하였다. 그가 유배를 당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강응환의 집안은 명문세가는 아니지만 낙향 후에도 사부가로서의 전통을 지켜 영광이나 무장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강응환은 그의 나이 5~6세에 이미 출중함이 드러났다. 9세 때 모친상을 당하였지만 조금도 예에 어긋남이 없었고, 10세 후로는 누위계신 부친을 직접 간호하며 그 틈을 타 학업에 힘써야 했다. 강응환은 그의 나이 36세 때인 영조 46년에 무과에 급제하였지만, 5년 이상이 지나서야 관직에 입사하게 되었다. 강응환은 무부(武夫)로서 무과급제(武科及第)가 소망이었고, 그 길을 택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가문의 뜻을 어기지 못하고 학문에 종사하면서 수년간 가슴에 품은 포부를 ‘무호가(武豪歌)’라는 가사를 지어 심정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강응환의 부친도 ‘무호가’에 담긴 아들의 큰 뜻을 택하도록 승낙했다. 강응환이 무과에 급제한 것은 부친의 승낙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경과된 후였다. 강응환은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이나 지방의 수령직(守令職)과 같은 문관계통의 문관(文官)이었지만 문관이라 부르지 않았다.

강응환이 내세울 만한 직책을 받게 된 것은 1776년(영조 52) 6월에 우부

장(右部將)으로 임명된 것이었으며, 정조 원년 9월에 성담장군의 품계로 종6품에서 종4품으로 승급하였다. 강응환은 약 20년간의 관직생활 중 16년은 지방관으로 보냈다. 하지만 4년 동안의 관직생활은 군관(軍官), 내금위(內禁衛), 우부장(右部將)으로 서반(西班) 말단직에 있었던 기간이어서 내직생활(內職生活)을 한 것은 겨우 1년 남짓하였다. 강응환은 1778년(정조 2) 7월에 최초로 내직에 들어가, 통례원 인의(通禮院 引儀)라는 동반직을 제수받았다. 그 후 동년 12월에 정 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헌부감찰(行司憲府監察)로 승진하였다.

강응환은 1779년(정조 3) 7월에 경남 칠원현감(漆原縣監)에 임명되어 16년에 걸친 외임(外任) 생활이 시작되었다. 조선시대의 수령직은 행정 외에도 사법, 치안, 재정, 병사, 교육, 관내의 모든 문제를 관장을 해야 했다. 수령은 관할하는 고을 내에서 국왕의 통치권을 대표하는 유일한 관원으로 고을의 우두머리이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만 했다. 강응환이 맡게 된 칠원현(漆原縣)은 경상도 71개 군현 중 가장 작은 고을 중 하나였다. 칠원현에는 4개면 53개리가 있었고, 4면 중 하나인 귀산면은 월경지로서 해변에 따로 위치하고 있었다. 그의 칠원현감 재임기간은 만 3년 7개월로 정조 7년(1783) 3월에 이임하고, 5월에 경상도 초계군수로 부임하였다. 칠원현감 강응환은 군현의 운영체제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시대에 수령은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향승 즉, 좌수와 별감의 보좌를 얻어야 하였고, 고을의 관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이속들에게 의존해야 했다. 작은 지방에서 20~30명, 많은 곳은 50~60명까지 이속<sup>27)</sup>들이 지역을 세거하면서 관아를 독점으로 관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지만 수령을 낭패케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약간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다. 다산은 좌수와 별감을 가르켜 수령의 지위를 중국 주대의 제후에 비유하면서

---

27) 이속은 정조 17년경 편찬된 “호남지(湖南誌)”(寫本 12冊)에서 몇몇 군현의 향승 이속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부류를 말한다.

어려운 직책을 맡고 있다. 왜냐하면 제후처럼 지위를 세습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간사와 교활한 무리들의 논간에 빠지기 쉬운 처지에 있어서 그 직책이 어렵다는 다산의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수령지난 백배어공후(守令之難 百陪於公候)”라고 본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sup>28)</sup> 일선치미의 실무에는 대개가 어둡고 경전과 문장공부가 전부인 선비인 수령들에게는 토착세력이 어려운 상대였고, 오히려 목인과 타협 속에서 목인을 택하였다.<sup>29)</sup>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칠원현감 재임 중 강응환에게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는 부임한지 1년 반쯤 되던 해 정조 5년(1781) 정월초에 마군(馬軍)의 잘못에 의해 역마환점사(驛馬換點事)라는 죄목으로 심문을 받기도 하였다. 강응환의 저서 중 『칠원정적』에는 ‘이역복말화검사사임수철극리시일기’라는 제목의 글로 실려 있다.

강응환의 저술로는 1912년 간행된 『물기재집(勿欺齋集)』과 『칠원정적(漆原政蹟)』, 『내영정적(萊營政蹟)』이 필사본으로 전하고 있다.<sup>30)</sup> 『칠원정적』, 『내영정적』은 강응환이 경상도 칠원현감(漆原縣監)과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로 재직 당시에 있었던 직무와 관련된 각급관서(各級官署)에 발송한 각종 공한(公翰)<sup>31)</sup>과 재직 중에 있었던 사안들에 관해서 연월일 순으로 수록한 책이다.

『물기재집』의 내용은 『칠원정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상급관서(上級官署)에 직무와 관련된 보고문 또는 진정서(陳情書) 같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외에 『칠원정적』과 『내영정적』에 없는 시(詩), 가(歌), 침(琴), 서(書) 및 잡저(雜著)도 실려 있다. 그리고 『물기재집(勿欺齋集)』의 부록에는 강응환의 전기인 가장(家狀)과 묘갈명(墓碣銘)이 실려 있는데, 가장은 강응환

28) 공이나 후는 다 제후의 등급이며 여기서 공후라는 말을 제후와 동일한 뜻으로 쓴 것이다.

29) 이 점에서 강응환은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30) 칠원정적은 40장 80면, 내영정적은 14장 280면으로 되어있다.

31) 공한은 정확히 말하면 공한의 초본을 말한다.

의 아들로 그 역시 무과출신(武科出身)인 강제호(姜在浩)가, 묘갈명(墓碣銘)은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 지은 글이다. 이 두 편의 글이 강응환의 생애와 업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강응환의 고가에는 두 폭의 지도와 그의 초상화(肖像畫)가 있다. 강응환의 상반신 초상화는 그가 경상좌수사(慶尙左水使)의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국왕에게 세배를 드리러 갔을 때 정조께서 화공을 불러 그리게 하여 하사한 것이다. 고관이나 정승, 공신도 아닌 강응환에게 초상화를 내리신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다.

지도는 두 폭이 다 병풍처럼 절첩으로 되어 있으며 비단에 채색으로 그려져 있다. 두 지도는 《청북변성도(淸北邊城圖)》와 《고려중요처도(高麗重要處圖)》라고 각각 표시되어 있다. 《청북변성도》는 12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1폭의 크기는 세로 44cm, 가로 18.4cm, 총 길이는 43.0×226.0cm이다.

《고려중요처도》는 세로 62cm, 가로 20.5cm로 전체의 길이는 328cm로 《청북변성도》보다 크다. 《고려중요처도》는 16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폭이 지도(地圖)로 그려져 있고, 4폭이 설명문으로 채워져 있다. 《청북변성도》의 청북(淸北)은 청천강(淸川江) 이북 지역을 지칭한다. 의주(義州), 삭주(朔州), 창성(昌城), 벽동(碧潼), 초산(楚山), 위원(渭原) 및 강계(江界) 등 압록강 일대의 국경지대를 그린 군략지도이다. 강원도와 접하고 있는 동해안의 영해(寧海)로부터 전라도와 접경인 하동(河東)에 이르는 경상도 연안(沿岸)의 전역과 연해(沿海) 일대의 섬들을 그린 《고려중요처도》는 영남의 해안 지역의 군사시설을 그린 관방지도이다.

### 3. 물기재 강응환의 관방지도 제작 배경

조선시대의 관방지도의 제작은 조선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쪽 변경 지방의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17세기 초 두 호

란을 겪은 조선은 청의 만주 회귀에 대한 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청나라와의 국경지대, 그리고 만주지역에 대한 관심 및 지리정보 파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7세기의 국가적인 위기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대청에 대한 위기감은 국경을 넘어 정치적, 정책적 측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바뀌어갔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대청 인식과 북방인식 변화가 관방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18세기 북방인식에 변화와 관방정책의 변화로 이어졌다. 또한 새로운 관방정책은 평안도와 함경도지역의 관방시설 확충으로 연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관방지도가 제작되었다. 관방정책의 새로운 인식과 관방정책의 다양성이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방지역의 관방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청이 중원에서 세력을 잃을 경우 그들의 원래 발상지인 영고탑<sup>32)</sup>으로 자연스럽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형성되었다.<sup>33)</sup> 숙종 초 중국의 정세 변동은 영고탑회귀설(寧古塔 回歸說)이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다. 숙종은 중국에서 오삼계의 난 등 내란이 심화되고 있는 속에서 즉위하였다. 청이 퇴로 확보를 위해 심양과 영고탑에서 퇴로를 하려한다는 사신의 보고가 계속해서 들어오는<sup>34)</sup>으로 보아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강희제는 대만을 통일하고 소수민족을 평정했으며, 제정러시아의 침몰을 물리치는 등 중국의 변경지대를 안정시켰다. 또한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문화사업도 병행하였다. 강희제는 1707년(숙종 33)에서 1718년(숙종 44)에 걸쳐서 중국에서 활동하던 예수교 선교사들을 동원하여 중국 전역을 천문측량하게 하고 《황여전람도(황여전람도)》를 제작했다.<sup>35)</sup> 청은 옹정제와 건륭제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 판도를 더욱 넓혀갔다.<sup>36)</sup> 이후에도 청에서는 조선을 의심어린 눈초리로 바

32) 영고탑은 현재의 흑룡강성 영안현(寧安縣)에 해당한다.

33) 배우성, 1997, 17.18세기 청에 대한 인식과 북방영토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99, 한국사연구회, pp.307.

34) 숙종실록, 13. 하, 숙종 8년 11월 정묘.

35) 서인달 외, 1989, 중국통사, 청년사, pp.710~712.

36) 서인달 외, 1989, 위의 책, pp.699~703.

라보고 있어 한동안은 그들의 국내정세를 조선의 사신들에게 쉽사리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청의 내란 사태 이후에도 조선과 관련된 청의 조치는 조선 지식인들에게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청이 제사를 핑계로 백두산을 왕래하려 하거나<sup>37)</sup>,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 작성을 위해 조·청간의 국경지대를 조사한 일, 정계를 위해 목극동이 파견된 일이 영고탑회귀설에 무게를 더해 주는 사건으로 인식되었다.<sup>38)</sup> 특히 몽고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존재로서 언제든지 조선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영조대 몽고에 대한 인식이 면밀한 검토 하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18세기 중반까지 이러한 인식이 계속되었으나 중국 측의 태도의 변화가 계기가 되어 청의 몰락의 인식이 다시 바뀌게 되었다.<sup>39)</sup>

남구만(1629~1711)은 중국의 『성경지(盛京志)』를 입수하여 방적법을 이용해 <성경여지전도>를 확대, 모사하여 숙종과 비변사에게 올렸다. 이로 인해 성경지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 중국의 주요 거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서북지역에 다시 청의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방어를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이이명(李頤命, 1658~1722)은 1706년(숙종 32)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군사시설을 자세하게 표시한 《요계관방지도(遼薊關防地圖)》를 제작하여 왕에게 올렸다.<sup>40)</sup> 이이명은 1705년(숙종 31) 4월에 중국 사신 갔다가 청에서 입수한 4권으로 된 『주승필람』과 《산동해방지도》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 지도들

37) 숙종실록, 권 9, 숙종 6년 3월 갑신.

38) 강석화, 1996, 조선후기 함경도의 지역개발과 북방영토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26~27.

39) 대청 위기의식은 민간에서 심지어 19세기 후반까지도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이후 서북지역 방어정책과 군제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개발이 본격화되어 갔던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위기의식이 극복되어 나갔기 때문이었다.

40) 배우성, 1996, 조선후기 확대된 영토의식과 북방지역 고지도에 나타난 영토 영해의식, 역사비평 37, 역사비평사, p.350.

은 작자와 제작시기가 분명하게 적혀있는 지도로서 이이명은 군사적 측면이 아닌 지리적인 측면으로 숙종에게 올렸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점에서 보면 명나라가 멸망은 했지만 훌륭한 방어태세와 군사시설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보물 제1537호. 彩色寫本. 162.2cm×191.4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북방영토에 대한 지리적 범위 획정은 백두산정계비가 근거가 된다. 그 핵심은 1712년 청국과 조선이 실제로 국경을 함께 답사해 결정한 백두산정계비에 새겨진 ‘서쪽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것이다.<sup>41)</sup>

조선후기에 임진·병자호란을 극복하고 백두산 일대에 여진인들이 이동하자 북방지역에 백두산 일대와 두만강 중상류지역에 이주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거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청인들과의 마찰도 자주 일어나게 되자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두만·압록강 대안지역을 왕래하는 것을 금하였다.<sup>42)</sup>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청에 정부는 양국의 국경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양국의 경계를 조사하여 명백히 규정하기 위해 여러차례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조선 역시 청에 대한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기회를 틈타 청의 지도나 지리지를 수집하여 백두산 일대의 지리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였다. 1712년 오라총관 목극동이 황제의 명을 받아 북경일대를 탐사하여 백두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10리가 되는 분수령 지점을 발견하고, 1712년 5월 5일 경계표시를 압록과 토문으로 삼게 되었다.<sup>43)</sup> 또한 조선의 『한청감계미결안찰요』 기록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임진, 병자호란의 후유증이 극복되고 백두산 일대에 여진이 이동하자 두만강과 압록강 중상류지역에 주민들의 생활권이 늘어나 조선인과 청인들의 충돌도 늘어나게 되었다.<sup>44)</sup> 양국

41) 조병현 외, 2007, 우리나라 북방영토의 경계획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p.80.

42) 김혜자, 1982, 조선후기 북변월경문제연구, 이대사원, 18.19합집,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회, pp.57-81.

43) 국경표시 공사는 국경과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청의 목극동이 조선에 지시하여 조선의 부담으로 설치되었다. 목극동이 강희제에게 제출한 북명서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 결과, 조선은 압록강 북편의 소위 서간도지방을 청에 빼앗기게 되었다. 이 표식 공사를 실시할 때 목극동이 경계로 지칭한 토문강이 두만강의 상류가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다. 단, 압록, 토문 두강 사이에 지방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신교본청사고’에 나타나있다. 양태진, 1984, 민족지연으로 본 백두산영역 고찰, 백산학보, 제28호, p.112.

44) 조선 후기 북변 주민들의 범월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김혜자, 1982, 조선후

정부는 계속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보고 경계를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지리적인 위치가 조선과 가까운 평안도의 피해가 우려되었고 영고탑장군이 반란을 할 경우 조선의 예상 경로와 중국의 정세 변화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했다. 영고탑회귀설은 여전히 맹위를 떨쳤으나 청이 몽고의 방해를 받을 경우 숙종대와 다른 판단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1722년(경종 2) 12월 이태좌(李台佐 1660~1739)는 경종에게 영고탑회귀설과 관련된 애양성(霽陽城)을 강조하게 된다. 1726년(영조 2) 김유경(1669~1748)은 청에서 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고를 보내 왔고<sup>45)</sup>, 사신들의 눈에도 옹정제가 실패한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영고탑회귀설과 관련해서 애양성은 새롭게 인식되고 있었다. 1736년(영조 11) 사신으로부터 몽고의 지도를 사들여 지리적인 위치를 분명히 하게 되었다. 1750년(영조 26)~1751년(영조 27)에 편찬된 《해동지도》는 전국 군현지도집으로 영조대 유지되고 있던 국토관과 관방관의 전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전국 군현지도집의 앞부분이 달라진 점은 이이명의 설명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크게 네 부분으로 설명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설명은 영고탑의 역사에 대한 유래, 청에 관한 내용적인 설명이다. 둘째, 청의 군사편제를 설명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청이 몽고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이 설명되고 있다. 네 번째는 몽고의 영역과 48부의 명칭, 강한 군사력이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청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 설명문은 영조 20년대에 만들어진 《서북피아양계 만리일람지도》나 《서북강계도(西北疆界圖)》 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僮說)에서도 인용되었다.<sup>46)</sup>

---

기 북변 월경문제연구, 이대사원, 18.19합집,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회, pp.57-81.

45) 승정원일기, 권624, 영조 2년 10월 10일(34책, 107면, 나).

46) 배우성, 1996, 18세기 관찬지도 제작과 지리인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2장 제1절 참조.

이러한 인식은 《해동지도》에 실린 《요계관방지도》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가 있다.<sup>47)</sup> 이익은 우연히 만주와 조선 서북지방이 상세히 묘사된 지도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몽고와 청이 어느 한 쪽이 불리해지는 상황이 조성될 경우 조선과 몽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맺어질 것으로 보았다.<sup>48)</sup> 1737년(영조 13) 영조대 전반에 영고탑 자체의 위험성을 주목하였고, 조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몽고가 제삼세력으로 간주되어졌다. 1741년(영조 17)의 《영고탑총람도》<sup>49)</sup>는 조선의 이러한 북방인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지도는 영고탑 자체의 위험성과 함께 몽고에 대한 위기의식이 표출되어 있다.<sup>50)</sup> 그 지도에는 영고탑과 함경도 회령을 이르는 길과 소요일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병영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그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몽고에 대한 위기의식도 표출되어 있었다. 영조 초에 《몽고지도》<sup>51)</sup>로 몽고에 대한 지리적 정보가 부분적으로 입수되어 몽고족의 거주지와 청의 습속에 동화되어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몽고는 여전히 강한 군사력으로 조선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아직까지 영고탑회귀설로 위기감을 갖고 있는 서북지역과 연해·도서(島嶼)지역 등 변경지대는 변지<sup>52)</sup>라는 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47) 배우성, 1996, 18세기 관찬지도 제작과 지리인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38~144

48) 영조실록, 권44, 영조 13년 5월 신축.

49)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p.384.

50) “영고탑회귀설” 1741년, 89.5x104.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99. 선춘령 바로 아래로는 온성부 근처에서 두만강으로 합류되는 물줄기가 표시되어 있다. 이 물줄기는 위치상으로 해랑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미 조선초기에 구별되었던 해랑하와 훈춘하는 《요계관방지도》에서 구별되지 못했다. 이이명은 이 물줄기를 훈춘하로 생각한다. 이러한 오류는 원도인 “성경지(盛京誌)” 자체의 소략함 때문에 생겨났다. 조선 초기형 지도들은 해랑하의 발원처에 대해 오류를 범하고 있었지만, 《요계관방도》는 해랑하와 훈춘하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해랑하의 발원처를 백두산으로 보는 조선초기형 지도들의 오류를 피할 수 있었다.

51) 승정원일기, 권801, 영조 11년 5월 26일(44책, p.798, 나).

52) 변지는 전란이 발생할 경우 가상해 설정된 방어선 바깥쪽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변지로는 압록강변의 여러 국경도시인 평안도의 의주 · 창성 · 벽동 · 초산 · 위원 · 강계 등이다.<sup>53)</sup> 17세기에 남구만(1629~1711)은 변지와 대비되는 내지를 변지의 범위를 좁혀 함경도 부령의 차유령 외곽과 회령, 부령, 무산, 경성 등 여러 군사시설이 설치된 장진강 유역일대를 내지로 이해했다. 국가는 함경도의 변지지역인 삼수, 갑산과 육진지역을 역임한 무신수령은 곧바로 방어사 역임을 인정하여 병, 수사의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원칙, 즉 일종의 특전을 부여하고자 했다. 1713년(숙종 39)에 이광좌(李光佐, 1674~1740)는 1715년(숙종 41) 함경감사직을 부임하면서 이 원칙을 주장<sup>54)</sup>하였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다.<sup>55)</sup> 이어 함경감사 권익관(權益寬, 1676~1730)은 우대 원칙을 부활시킴으로써 국방의 내실화를 강화시켰다.<sup>56)</sup> 영조는 무신만을 파견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도 이 후에도 여러 차례 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급기야는 『속대전』에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sup>57)</sup> 평안도 어사인 구윤명(具允明, 1711~1797)의 보고에 따르면 방어체제는 꾸준히 강화되었지만 방어의 중심은 청천강 이북지역의 직로<sup>58)</sup>와 방어용 수목지대로 옮겨 갔고, 숙종 초 영의정 허적은 평안도 창성부 당아산성의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sup>59)</sup>하였다. 1727년(영조 3)에는 평안병사 이사성에 의해서 평안도에 3부병이 설치<sup>60)</sup>되었다. 평안도에서는 서울로 이르는 모화현(慕華峴), 동선령(洞仙嶺), 효성령(曉星嶺) 이외에 험하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 청이 서울로 진격해 올 경우 조선측에서는 평양성(平壤城), 자모산성(慈母山城), 황룡산성(黃龍山城), 철옹산성(鐵甕山城), 안주성(安州城), 철산의 운암산성(雲巖山城), 선천의 좌현(左峴), 선천의 동림성(東林城), 선천의 대한산

53) 남구만, 약천집 권 4, 소차, 진북경도사잉진지도소.

54) 비변사등록, 65책, 숙종 39년 4월 23일(6책, p.500, 라).

55) 승정원일기, 권669, 영조 4년 8월 23일(36책, p.880, 다).

56) 승정원일기, 권649, 영조 3년 11월 8일(35책, p.541, 나).

57) 속대전, 병진, 외관직. 절도사이증경변지수피방어사자통의.

58) 직로는 의주와 서울을 잇는 대로를 말한다.

59) 승정원일기, 권247, 숙종 원년 5월 25일(13책, p.50, 라).

60) 승정원일기, 권648, 숙종 3년 10월 20일(35책, p.453, 나).

성(大漢山城) 등 방어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청이 방향을 틀어 의주와 창성 사이로 온다면 이러한 방어체계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1729년(영조 5)에 평안감사로 나가게 된 송인명(宋寅明, 1689~1746)은 이 문제를 직시하고 국경도시들을 내지로 옮겨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sup>61)</sup> 그러나 안주성 축성에 반대하는 유복명은 평안도 방어책은 자연적으로 조성된 수목지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는 적합지 않고, 병영을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sup>62)</sup> 1732년(영조 8) 《해동지도》에 실려 있는 《관서일로영애(關西一路嶺隘)》에는 선천의 동림성 옛터 안에 청강첨사(淸江僉使)가 표시되어 있다. 1739년(영조 15)~1740년(영조 16)에 걸쳐서 세워진 개천의 금성진(金城鎭), 광산의 임해진(臨海鎭), 순천(順川)의 용연진(龍淵鎭)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1732년(영조 8)~1739년(영조 15) 사이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63)</sup> 《관서일로영애(關西一路嶺隘)》는 압록강변 국경도시들과 내지를 구별하는 산줄기가 강조되어 있어서 영고탑회귀설과 관련된 방어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내지지역은 청천강 이남지역보다는 이북지역을 중심으로 산성과 방어시설, 수목지대, 각 산성과 대로, 청강첨사가 주재하고 있던 동림성의 위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평안도의 대표적인 수목지대인 가산의 효성령도 이미 개간으로 화전을 일구어 그 지역의 지방관은 그 개간지에 세금을 징수하여 화전행위마저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개간 사태는 일부의 방어시설을 황폐화시켜 곳곳에 사잇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sup>64)</sup> 1743년(영조 19) 송인명은 국가와 개간을

61) 승정원일기, 권 692, 영조 5년 8월 27일(38책, p.199, 라).

62) 승정원일기, 권 971, 영조 20년 4월 14일(53책, p.106, 라).

63) 이 지도는 《해동지도》 평안도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다. 《해동지도》 1750년(영조 26)~1751(영조 27) 사이에 편집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서일로영애(關西一路嶺隘)》를 포함한 평안도 지역의 지도들은 실제로 영조대 초반경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64) 승정원일기, 권965, 영조 19년 11월 10일(52책, p.809, 라).

막으려 노력한 결과 정책이었던 적유령(狄踰嶺)과 철산의 운암산성(雲巖山城)까지 수목지대를 유지할 수 있었고, 선천 좌현 인근에만 군사시설이나 수목지대가 조성되어 지지 않았다. 그래서 영조는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여 이 지역의 화전을 금지시키게 되었다.<sup>65)</sup>

함경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야인들의 침범이 많지 않아 ‘변지’와 ‘내지’ 구분이 적용되고 있었다. 방어체제의 관심사는 내지의 길목인 마천령과 이곳에 인접한 길주, 성진이었다. 1727년(영조 3) 8월에 오명신(吳命新)을 이어 이제가 서울로 이어지는 함경도 봉수체계의 정비를 주장하였다. 17세기에 남구만의 주장으로 설치된 후주진(厚州鎭)이 폐지된 후 어떤진(魚面鎭)은 화저봉수(火底烽燧) 역할을 맡아 장진강(長津江) 강변으로 이동하였으나 국경과 300리나 떨어진 곳이어서 적들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화저봉수를 구갈파지진(舊架波知鎭)으로 옮겨야 했다.<sup>66)</sup> 국경지대의 도로나 민간인들에 의해 새로 생긴 길들은 국가에서 방어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고,<sup>67)</sup> 영고탑회귀설은 전쟁의 위기감을 표현하게 만들었고, 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서북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게 만들었으나 우려가 되는 곳은 서북지역만은 아니었다. 영조대부터 영고탑 자체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대규모의 전란에 대비한 연해, 도서지역의 방어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7세기말에는 황해도 연안에서 해적들이 자주 목격되었고, 중국은 이 시기에 자국민의 해외도항을 금지시켰다. 조선은 어채<sup>68)</sup>의 선박과 몰려드는 해적선들에 의해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황해도 산성을 중심으로 방어체제가 중시되었는데, 이것은 황해도 방어체제가 위기

65) 승정원일기, 권956, 영조 19년 4월 20일(52책, p.335, 가).

66) 승정원일기, 권646, 영조 3년 8월 20일(35책, p.208, 라).

67) 고승희, 1995, 18,19세기 함경도 지역의 유통로 발달과 상업활동,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34~35. 철령 북쪽 삼방로에는 민들의 내왕이 끊이지 않아, 정조 때에 이르면 조정에서도 뒤에 이 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68) 이민웅, 1995,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론 34, pp.19~22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해동지도》에 실려 있는 《황해도지도(黃海道地圖)》는 황해도의 군사적 요충지를 지역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황해도의 육로는 서북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서는 길목으로 서울로 이어지는 대로와 주변의 도로들이 표시되어 있으며 유사시 방어체제가 도입될 수 있는 산성들이 강조되어있다. 도서 지역은 자세히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이 지도에서 표현되고 있는 지역의 관심사는 해로보다는 육로에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으로는 해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황해도 수군 군제를 재정비하고 내실화를 진행하여 1718년(숙종 44)에 소강첩사<sup>69)</sup>를 승격시켜 황해수사와 웅진부사를 겸하였다. 이 후로 외교활동으로 해방 대책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733년(영조 9)에 강화부에서는 퇴역 전선의 필요 목적이 전선과 변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사시 통진(通津)에서 강화부로 건너가려는 선박문제가 주된 목적이었다. 1734년(영조 9) 청에게 자문(資文)을 통해 황당선 출항과 함께 강희제와 옹정제가 난민에 관한 사항을 확인시켜 줌으로 해서 외교적인 마찰을 줄이는데 노력했다. 1736년(영조 12) 추포군(追捕軍)을 증강<sup>70)</sup>하고, 1740년(영조 16) 장령 이휘항(李彙恒)의 황당선 대책에 더 현실화시키자는 주장이<sup>71)</sup> 1771년(영조 47) 채택<sup>72)</sup>되면서 해방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방편이 이루어졌다. 해방 대책으로 치안 확보가 또 다른 외교상의 문제<sup>73)</sup>로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영조는 조선의 적극적인 해방대책이 청의 집권력 약화 시 해상 세력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조선이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대청의식 때문에 황해도의 해방 문제가

---

69) 비변사등록, 71책, 숙종 44년 11월 12일(7책, p. 87. 가).

70) 비변사등록, 99책, 영조 12년 3월 25일(10책, p. 162. 라).

71) 비변사등록, 107책, 영조 16년 12월 12일(11책, p. 22. 다).

72) 비변사등록, 155책, 영조 47년 3월 10일(15책, p. 51. 다).

73) 비변사등록, 111책, 영조 18년 10월 6일(11책, p. 311. 라).

위기의식과 관련 될 수밖에 없었다.

해동지도에 실려 있는 <강화도지도(江華島地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종대에 강화도에 49개소 돈대를 쌓고 문수산성(文殊山城)과 내성을 또 쌓은 것은 강화도 내실화를 위한 보장수단이였다.<sup>74)</sup> 그리고 조선후기 강화도 수비체제를 정비하는 구체적인 성과였기도 하다. 강화도는 서울에 인접한 섬이라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가질만한 요충지로 볼 수 있지만 보장처로서의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고, 청이 해상으로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강화도와 수비체제는 무관하였다. 1740년(영조 16)강화유수 윤득화(尹得和)가 강화도내 12개소에 편성되어 있는 나룻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삼남수영(水營)에 일정량을 할당하게 하였다.<sup>75)</sup> 강화도가 보장처로만 인식되어 있어서 경기 서해지역의 해방을 위한 역할<sup>76)</sup>도 부여되지 않았다. 1743년(영조 19) 영조는 건륭제의 심양의 행차 소식을 듣고 영고탑회귀설을 떠올리며 비변사의 대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일상적인 움직임은 없었으나 영고탑회귀설의 자강이 급선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sup>77)</sup> 1746년(영조 22) 청에서 조선국경이 가까운 곳까지 개간지역을 넓히려는 일은 조정에서 중대한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다. 1770년(영조 46) 신경준(申景濬, 1712~81)은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청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입수하게 되어 정조대 북방지리 인식은 큰 진전을 보였다.

1778년(정조 2) 통영을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강화도는 보장처로서 전선이 갖추어 지지 않았고 강화도의 수비의 개념이 바다가 아닌 섬을 지키려는 것이었음을 말해 주기 때문에 김종수(金種秀, 1728~1799)는 이를 지적하였다. 청에 대한 조선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보장처의 관념도 사라지기 어렵다. 서북지역 가운데 변지는 방어선이 바깥쪽으로 설정되었고,

74) 이민웅, 1995,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론 34, p. 30~42.

75) 비변사등록, 106책, 영조 16년 윤6월 18일(10책, p. 930. 다).

76) 비변사등록, 106책, 영조 16년 윤6월 26일(10책, p. 931. 라).

77) 승정원일기, 권1300, 영조 46년 1월 23일(승정원일기, 72책, 757쪽, 나).

서해 해방체제는 치안차원보다는 제삼세력에 의해 위협의 가능성이 고려되면서 강화도의 보장처 인식은 계속해서 적용되었다.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재위 1776~1800)의 시대는 탕평정책을 통한 왕권강화를 동시에 민국을 위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개혁은 이미 국제도시, 상업도시로 변모한 서울의 복합적 상업문화와 농촌의 유교문화를 조화시켜, 유교와 농업을 근본으로 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이었다.<sup>78)</sup> 정조는 사당이라는 정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책 연구기관이자 권력기관인 규장각을 키우고, 새로운 정치공간으로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북쪽으로는 개성, 서쪽으로는 강화도, 동쪽으로는 광주, 그리고 남쪽으로는 화성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인 정조의 꿈이 담긴 곳이라고 할 수 있다.<sup>79)</sup>

정조는 강화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1779년(정조 3) 통어영을 강화부에 통합하고, 1782년(정조 6)에는 강화도 행궁 옆에 규장각의 지부인 외규장각을 설치하였다. 1787년(정조 11) 개성유수의 장계에 의해 금천의 대소남면과 백치진을 개성 본영에 이속하는 문제가 논의되고<sup>80)</sup> 1779년(정조 3)에 남한산성이 증축된 것은 그러한 조치였다.<sup>81)</sup> 1781년(정조 5) 북방 경비의 강화와 관련하여 평안도 요충지 18곳의 고개에 성을 쌓고 둔전을 설치할 것을 논의하였고<sup>82)</sup> 1785년(정조 9) 7월에는 함경도에 장파진을 설치하면서 《장파지도》를 제작하였다.<sup>83)</sup> 1796년(정조 20)에는 함경남도에 후주진이 설치되었는데<sup>84)</sup>, 이 과정에서 《후주지형도》가 제작되었다. 정조는 북방지역의 방비

---

78) 한영우, 1998,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및 김문식, 1991, 상서 강의를 중심으로 본 정조의 경학사상, 한국학보, 75호 참조.

79) 배우성, 1996, 18세기 관찬지도 제작과 지리인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제2장 제1절 참조.

80) 정조실록 권 23, 정조 11년 5월 무자.

81) 정조실록 권 7, 정조 3년 6월 경오.

82) 정조실록 권 12, 정조 5년 12월 을유.

83) 정조실록 권 20, 정조 9년 7월 신유.

84) 정조실록 권 45, 정조 20년 11월 경신.

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러한 관망지도들은 비변사에서 관리하였다. 정조의 명에 의해 1777년 청으로부터 총 5,022책에 달하는 『고금도서집성』과 새로운 일본지도의 수입으로 조선학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다. 이 자료들을 참고하여 조선은 종전부터 만주지반과 한반도를 함께 그려오던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를 한층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었다. 정조는 서울과 변방의 방어체제가 어느 때보다 완비되고, 왕권이 안정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지리지 편찬과 지도제작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1788년(영조 12)부터 시작된 60권의 방대한 『해동여지통재』로 대표된다. 1800년(정조 24) 정조가 급서함으로써 이 책은 끝내 완성하지 못하였다.<sup>85)</sup> 정조가 『해동여지통재』 편찬을 위해 지리, 지도 전문가인 정항령의 아들 정원립과 규장각 각신이던 김종수, 서호수, 이가환, 이서구, 윤행임, 이만수, 성대중,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학자와 각 도의 지리전문가들 26명을 참여시켜 관리토록 하였다.<sup>86)</sup> 정조가 자신의 통치이념에 맞는 지리서를 갖고자 함이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17세기~18세기 초까지 각각의 통치이념에 맞게 관망지도와 지리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전란의 위기의식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지만 두 차례의 호란을 겪은 후 종묘사직을 봉안할 장소로 강화도가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19세기까지도 계속되었다.

85) 고종대 완성된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해동여지통재가 여지지 항에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까지 소장되었고,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86) 윤행임, 석재일록 제3책, 기유년(정조 13) 6월 16일.

### Ⅲ. 《清北邊城圖》의 구성과 내용

#### 1. 지도의 구성과 형태

《청북변성도(淸北邊城圖)》는 비단에 총 12폭으로 그린 채색필사본 지도이다. 각 폭의 크기는 가로 18.4cm, 세로 44cm, 총 길이는 43.0×226.0cm이다. 《청북변성도》는 압록강 일대의 국경지대 즉 의주에서 압록강 상류의 후주 강계까지의 성, 보, 파수 등을 자세하게 그린 지도이다.<sup>87)</sup> 전체 12폭 지도 상단에는 의주(義州), 삭주(朔州), 창성(昌盛), 벽동(碧潼), 자산(楚山), 위원(渭原) 및 강계(江界)의 7개 군현과 이 군현들에 소속된 각종 군사시설 즉 진보, 창고, 성곽, 파수 및 이들의 위치, 거주 인구 등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청북(淸北)은 실제로 적유령 산맥인 이북쪽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의 실제 모양을 그렸고 거주하고 있는 가호수와 인접지역과의 교통로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봉수와 적의 침입로가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이 지도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고개의 관문 표시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청북정맥의 관문들은 압록강 파수에 이어 제2의 방어선이 된다. 압록강변을 따라 배치된 파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만포진에서 상류에 이르는 폐사군 지역에는 파수의 배치가 조밀한 것을 알 수 있다.

---

87) 정몽주(鄭夢周)의 시에 의하면 “의주는 우리나라 문호이어서, 예로부터 중요한 관방이네. 장성은 어느 해에 쌓았는가, 꾸불꾸불산 언덕을 따랐네. 넓고 넓은 말갈의 물이 서쪽으로 흘러 봉강을 경계라고 표현하였다.



[그림 3-1] 《清北邊城圖》의 전체사진.

彩色寫本. 生絹. 18세기 후기. 43.0×226.0cm. 姜聲國 소장.

[표 3-1] 《清北邊城圖》의 지도 구성

폭	군현	진 보	파 수
제1폭	義州 朔州	의주읍성, 백마산성, 정수진, 정성진, 청수진, 청성진, 방사진, 옥강진, 수구진, 인상진, 양하진, 건철보, 성동령, 파막령, 삭주부	창고 18처, 영애 12처 봉수 12처, 파수 21처, 파막 36처
제2폭			
제3폭			
제4폭	朔州 昌城	온정령, 성동령, 연평령, 파영령, 매양, 절로,	봉수 6처, 파수 2처, 창고 20처
제5폭	昌城	묘동보, 운두리보, 갑엄보, 대방작령, 수항령, 청파영, 영벽종, 벽동군, 보리현	창고 7처, 영애 14처
제6폭	昌城 碧潼	진천	봉수 6처, 파수 8처, 정로 9처, 창고 16처
제7폭	碧潼 楚山	추구비봉, 대포아보, 소포아보, 광평보, 구계령, 최담보령, 별장소, 장대, 군기고	봉수 7처, 파수 15처, 적로 10처, 창고 5처
제8폭	楚山 渭原	노량진, 직동보, 봉수대	창고 3처
제9폭	渭原 江界	군남, 직동보	파수 30처, 적로 5처
제10폭	江界	장강군, 성간군, 용림군, 위원군, 만포진, 벽동, 진천, 전천군, 남군, 금동, 노동만포, 성경, 무창, 아이진, 경평보, 소파아포, 위군, 하군, 남군, 자성, 무창, 우예	봉수 22처, 파수 25처, 정로 9처, 창고 16처
제11폭			
제12폭			

## 2. 지도 내용의 분석

《청북변성도》는 총 12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쪽의 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쪽에는 의주읍성(義州邑城)에 대한 설명이 지도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의주는 현재의 신의주시로 용천군 양서면, 동하면 일부, 양광면, 삭주군 청수읍을 포함한 넓은 지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의주읍성은 축성연대는 미상이며, 1520년(중종 15)에 확장 개축되었다. 동서 남북의 성문 중 남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북한의 보물급 문화재 제 10호로 일명 '장변루' 또는 '내훈루'라고도 정해져 있다. 북문 밖에 있는 통군정은 의주성의 장대이며 관서팔경 중의 하나일 정도로 경치가 아름답다. 의주의 동쪽에 위치한 임천성은 일명 고정융진이라고도 하는데, 고려 때 유소가 홍화진 북쪽에 옛 석벽을 수리하고, 흙으로 쌓은 성으로 되어 있다. 남쪽의 백마산성은 축성연대는 미상이지만 강감찬이 축성하였다는 설과 1632년(인조 10) 임경업이 고쳐 쌓았고, 1753년(영조 29) 외성을 축성하였다고 전한다.

지도상단의 설명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주읍성은 돌로 성을 쌓았고 성의 둘레는 27,531보이고, 우물이 43개, 못이 5개가 있고, 인구 19,227 가구 중 성내에는 1,94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서울에서부터 1,090리<sup>88)</sup> 떨어져 있고, 평양에서는 520리, 안주로부터 340리 떨어져 있다. 창고(倉庫)는 18처로 사창(射創)으로 대동고(大同庫), 안민고(安民庫), 상평고(常平庫), 방군고(防軍庫) 등 5창이 성내에 위치하고 있다. 광평창(廣平倉)은 동쪽으로 90리 떨어져 있고, 가산창(加山倉)은 동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옥

---

88) 한국에서 1리는 국가 표준 도량형에 따르면 일본과 동일하게 약 4km이다. 이는 1909년 9월에 일본식 도량형법이 도입된 후 현재까지 개정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그 이전까지는 대한제국이 반포한 도량형법에 따라 1리는 약 420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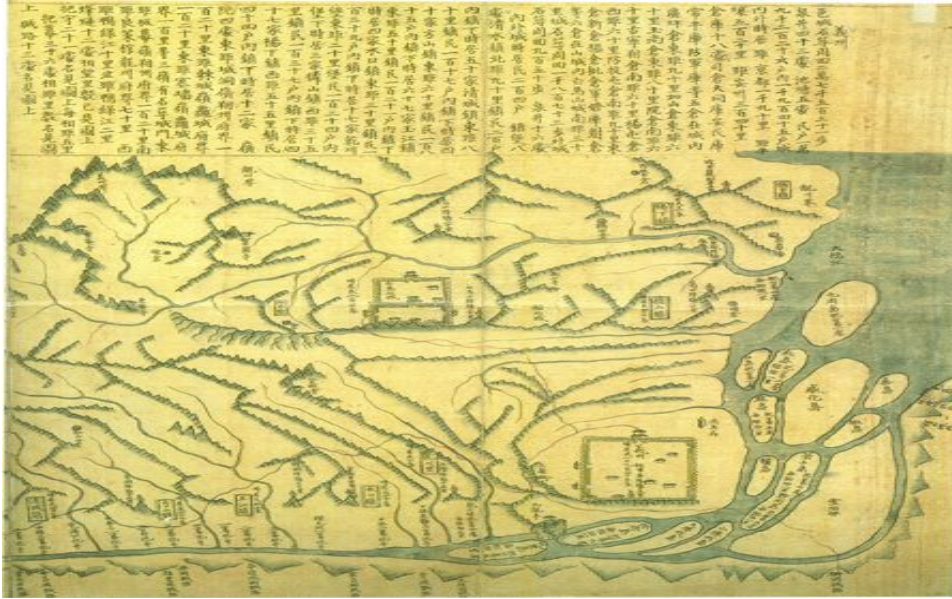
상창(玉尙倉)도 동쪽으로 80리 떨어져 있으며, 원창(原倉)과 고영삼창은 각각 남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양동창(陽東倉)은 서쪽으로 60리, 방목동창(防牧東倉)은 남쪽으로 90리 떨어져 있다. 동창(同倉), 신창(新倉), 양창(陽倉), 비창(批倉), 군수고(軍修庫), 사창(射倉) 등 6개의 창고는 읍성 내에 위치해 있다. 의주읍성에서 백마산성까지는 남쪽으로 30리 떨어져 있고, 읍성 석축의 둘레는 1,873보이다. 외성의 석축 둘레는 950보고, 우물은 16개이 있고, 204가구가 거주하며, 영애(嶺陔)는 8곳이 있다.

제2쪽에도 의주의 진보에 대한 설명이 지도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청수진(淸水鎭)은 북쪽으로 90리 떨어져 있고, 50가구가 거주하고, 청성진은 동쪽으로 80리 떨어져 있고, 117가구 중 진하동에 8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방사진(防射鎭)은 동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185가구 중 67가구가 진하동에 거주하고, 옥강진은 동쪽으로 50리 떨어져 있고, 121가구가 중 4가구가 진하동에 거주한다. 수구진은 동쪽으로 30리 떨어져 있고, 139가구 중 진하동에 17가구가 거주하고, 건천보는 동쪽으로 20리 떨어져 있고, 인구의 134가구 중 보하동 내에 3가구가 거주한다. 인산진은 서쪽으로 35리 떨어져 있고, 139 가구 중 진하동에 47가구가 거주하고, 양하진은 서쪽으로 55리에 위치하고, 44가구 중 진하동에 12가구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진보의 위치 및 규모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2] 《淸北邊城圖》 제2쪽에 기록된 진보의 위치 및 규모

쪽	진보	읍으로부터의 위치 및 거리	거주 가구
제2쪽 義州	淸水鎮	북 90리	50
	淸城鎮	동 80리	200
	鎮下洞		80
	防射鎮	동 60리	185
	鎮下洞		67
	玉江鎮	동 50리	121
	鎮下洞		4
	乾川堡	동 20리	134
	堡下洞		3
	燐山鎮	서 35리	139
	鎮下洞		47
	楊下鎮	서 55리	44
	鎮下洞		12

의주읍에 영애는 4처가 있는데 동쪽으로 성동령 삭주부경계에서 120리 떨어져 있고, 동쪽으로 극성령 구성부 경계에에서는 120리가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 파막령이 삭주부 경계로부터 120리, 남쪽에서는 양책관용천경계에서 70리, 서쪽으로 압록강과 10리, 북쪽으로 압록강에서 2리 만큼 떨어져 있다. 봉수는 12처로 지도상에서 서로 마주보이는 거리가 적혀 있다. 파수는 21곳인데 5리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파막 36처로 지도상에 13처로 지도상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제1쪽과 제2쪽 상단이 모두 의주읍성에 관한 설명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하단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읍성은 성곽과 사면에는 성문이 그려져 있고, 진과 보의 형태는 식별이 가능하게 두 줄의 사각형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3-2] 《清北邊城圖》 제1폭·제2폭.

彩色寫本. 生絹. 18세기 후기. 18.4×44cm. 姜聲國 소장.

제3폭에는 삭주에 관한 설명이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삭주읍성은 돌로 축성되었고 그 둘레는 2,933보이다. 우물은 8개이고, 읍성에는 6,652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삭주에서 서울까지는 1,030리 떨어져 있고, 평양까지는 470리 떨어져 있다. 안주에서는 300리 떨어져 있고, 창고는 9처가 있다. 좌측에는 읍창, 성 내에는 인창이 북쪽으로 30리 떨어져 있고, 신동창은 동쪽으로 50리, 동창은 70리, 산창은 남쪽으로 30리 떨어져 있다. 남창은 남쪽으로 80리 떨어져 있고, 하창은 남쪽으로 120리 떨어져 있으며, 풍창은 남쪽으로 130리 떨어져 있고, 대창은 남쪽으로 60리 떨어져 있다. 대삭주성 내에는 대삭주(大朔州)가 남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돌로 축성되어 있다. 그 둘레는 4,615보이다. 우물은 4개, 못은 1개가 있다. 성 내에 90가구가 거주하고, 구령진은 북쪽으로 40리 떨어져 있고, 83가구 중 19가구가 거주한다. 막령진은

동쪽으로 50리 떨어져 있고, 225 가구가 거주하고, 진하동에 43가구가 거주하고, 천마진 남쪽으로는 50리 떨어져 있고, 65가구 중 진하동에 21가구가 거주한다. 진보의 위치 및 규모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3-3] 《清北邊城圖》 제3폭 삭주 소속 진보의 위치 및 규모

폭	진보	읍으로부터의 위치 및 거리	거주 가구
제3폭 朔州	龜嶺鎮	북 40리	19
	幕嶺鎮	동 50리	225
	鎮下洞		43
	天摩鎮	남 50리	65
	鎮下洞		21

영에는 7처로 동쪽으로 창성부 경계 소방작령에서 50리 떨어져 있고, 창성부경계 대방작령에서는 동쪽으로 50리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경계인 발령은 30리 떨어져 있다. 제4폭은 삭주와 창성에 대한 설명이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온정령은 서쪽으로 30리 떨어져 있고, 성동령은 의주부 경계에서 50리 떨어져 있고, 5령의 성문은 서쪽으로 떨어져 있고, 판막령은 의주부경계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져 있으며, 연평령은 구성부 경계에서 남쪽으로 20리 떨어져 있고, 파영령은 구성부 경계에서 90리 떨어져 있다. 삭주는 압록강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고, 봉수가 6처로 서로 마주보게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다. 파수는 2처, 정로는 1처, 매양은 10리 떨어져 있어 지도상 명확하게 그려 있다.

창성읍성은 둘로 축성을 쌓았고 그 둘레는 2,155보이고, 우물은 11개, 못은 1개이다. 4,342가구가 성내에 거주하고, 393가구가 성 안팎에 거주하고 있다. 창성에서 서울까지는 1,090리 떨어져 있고, 평양은 510리 떨어져 있다. 안주에서는 340리 떨어져 있다. 창고는 20처로 좌측 성 내 남창은 서 남

쪽으로 45리 떨어져 있고, 북창은 북쪽에서 40리 떨어져 있고, 전창은 동쪽으로 30리 떨어져 있고, 고창동에서 50리 떨어져 있다. 시창동은 100리 떨어져 있고, 신창동은 120리 떨어져 있고, 동창동과 대창동은 150리 떨어져 있으며, 하창동은 170리 떨어져 있다.



[그림 3-3] 《清北邊城圖》 제3쪽·제4쪽.

彩色寫本. 生絹. 18세기 후기. 18.4×44cm. 姜聲國 소장.

제5쪽에도 창성에 대한 설명이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창성은 향창 산성 내 당아산성 동쪽으로 180리 떨어져 있고, 성의 둘레는 7,471보이고, 우물이 2개가 있으며, 2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창고는 7처로 대길보는 북쪽으로 50리 떨어져 있고, 32가구가 중 보하동에 8가구가 거주하고, 창동창은 북쪽으로 40리 떨어져 있고, 17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창하동은 117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묘동보는 북쪽으로 15리 떨어져 있고, 21가

구 중 보하동에는 9가구가 거주한다. 운두리보는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고, 2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보하동의 4가구는 갑엄보에서 남쪽으로 10리 떨어져 있고, 22가구 중 보하동에는 1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시한창은 동쪽으로 100리 떨어져 있고, 62가구가 중 창하동에는 19가구가 거주한다. 제5쪽에 표시된 진보와 창고의 위치 및 규모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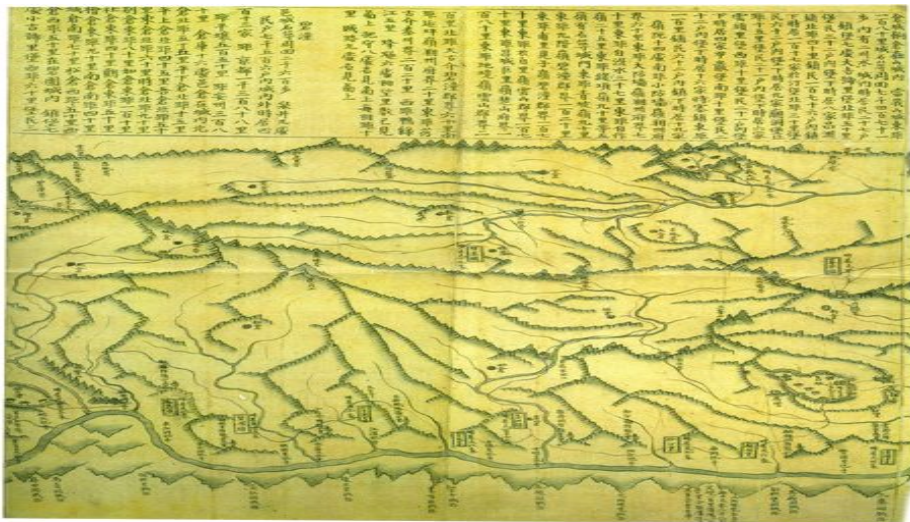
[표 3-4] 《清北邊城圖》 제5쪽 창성의 진보의 위치 및 규모

쪽	진보 및 창고	읍으로부터의 위치 및 거리	거주 가구
제5쪽 昌城	大吉堡	북 50리	32
	堡下洞		8
	廟洞報	북 15리	21
	堡下洞		9
	雲頭里堡	사 10리	21
	堡下洞		4
	甲掩堡	남 10리	22
	堡下洞		16

영에는 14처로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소방장령주부경계에 동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대방장령주부경계는 동쪽으로 70리 떨어져 있다. 영에서 양수는 동쪽으로 37리 떨어져 있으며, 자적령은 동쪽으로 25리 떨어져 있고, 수항령은 90리 떨어져 있고, 5개의 문으로 이루어진 축성이 동쪽으로 떨어져 있고, 청과영에서 동쪽으로 90리 떨어져 있고, 영벽동군계가 동쪽으로 120리 떨어져 있고, 보리현자에서 벽동군계까지 동쪽으로 170리 떨어져 있다. 영운산경계 동쪽으로 170리 떨어져 있고, 창성에서 초산군계까지는 동쪽에서 180리 떨어져 있고, 지경에서 영운산경계까지 북쪽으로 200리 떨어져 있다. 창성에서 벽동경계에 있는 대고개까지는 남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양주경계까지 동쪽으로 20리 떨어져 있고, 진천계까지 서쪽으로 220리 떨어져 있

고, 압록강도 5리만큼 떨어져 있다. 봉수는 6처, 파수 8처, 적로는 9처로 지도상에 명확하게 표시해 두었다.

제6폭은 벽동에 대한 설명이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벽동읍성은 돌 성으로 축성되었고 그 둘레는 2,600보이다. 우물은 9개이고, 성내에는 7,506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성내 안팎에는 43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벽동에서 서울까지는 1,388리, 평양까지는 550리 떨어져 있다. 안주는 380리 떨어져 있고, 창고는 16처로 평하창은 북쪽으로 15리, 평상창은 북쪽으로 45리 떨어져 있고, 성 내 북창은 북쪽으로 55리 떨어져 있고, 북창은 북쪽으로 50리 떨어져 있다. 가동창은 북쪽으로 60리 떨어져 있고, 창동은 북쪽으로 110리 떨어져 있으며, 가창동과 창동은 40리 떨어져 있고, 8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림 3-4] 《清北邊城圖》 제5폭 · 제6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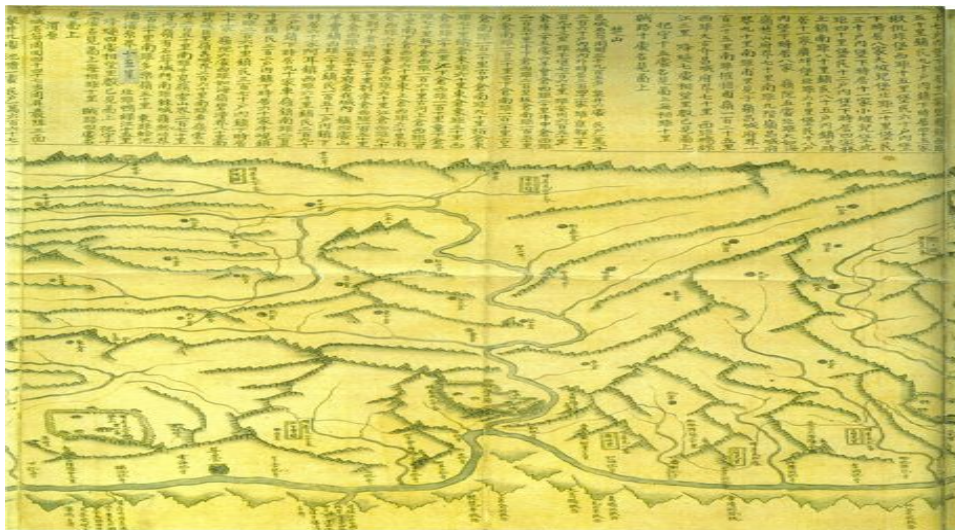
彩色寫本. 生絹. 18世紀 後期. 18.4×44cm. 姜聲國 所藏.

제7폭의 상단에는 벽동과 초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추구비봉에서 서쪽으로 15리 떨어져서 거주하고 있고, 성내에는 60가구가

거주한다. 대포아보는 북쪽으로 20리 떨어져 있고, 소포아보에서는 30리 떨어져 있고, 11가구가 거주한다. 광평보에는 11가구가 거주하고, 여해파수의 마을 경계는 남쪽으로 70리이고, 구계령은 창성부의 경계에서 남쪽으로 90리 떨어져 있다. 최담보령은 125리 떨어져 있고, 대고개는 창성부계에서 90리에 떨어져 있다. 봉수는 7처, 파수는 15처, 적로는 10처로 각각 10리씩 떨어져 표시하였다.

제8폭에는 초산과 위원에 대한 설명이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초산읍성에서 동창은 60리 떨어져 있고, 안창은 90리 떨어져 있고, 천창은 250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우마성에 영남창이라는 창고가 있다. 바다에서의 경계는 80리 떨어져 있고, 우마령 운산의 경계는 270리 떨어져 있고, 서문의 읍성을 경계로 하였다. 덕위천의 경계로 15리 떨어져 있고, 압록강에서는 15리 떨어져 있고, 봉수와 파수는 적노를 막기 위해 설치해 두었다.



[그림 3-5] 《清北邊城圖》 제7폭·제8폭.

彩色寫本. 生絹. 18세기 후기 18.4×44cm. 姜聲國 소장.

제9쪽에는 위원과 강계에 대한 설명이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유사시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계와 이산을 나누어서 위원을 설치하였다. 현 자강도 위원의 전체와 초산군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위원읍은 서북쪽 압록강과 통하고, 동남쪽 대로와 통해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읍성은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읍성 좌측에 보이는 오노량진은 압록강가로 옮겨 설치되고, 우측에 보이는 직동보, 현동진 성축에도 압록강변에 적의 정세를 정탐하는 파수와 신호를 전하는 봉수대가 설치되었다. 위원읍에 우물은 9개, 못은 1개가 있다. 초산의 호구는 16,007가구이며, 성안팎으로 307가구가 거주한다. 서울까지 1,165리, 평양까지 695리 떨어져 있다. 안주는 525리 떨어져 있고, 창고는 50리 떨어져 있고, 동창은 동쪽으로 50리 떨어져 있다. 직동보는 50리 떨어져 있고, 200가구가 거주한다. 전천령강계부계에는 동쪽으로 110리 떨어져 있고, 강계부는 동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파수 30처, 적로(敵路) 5처를 지도에 표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3-6] 《清北邊城圖》 제9폭 · 제10폭.

彩色寫本. 生絹. 18世紀 後期. 18.4×44cm. 姜聲國 所槓.

제10폭과 제11폭에는 강계에 대한 설명이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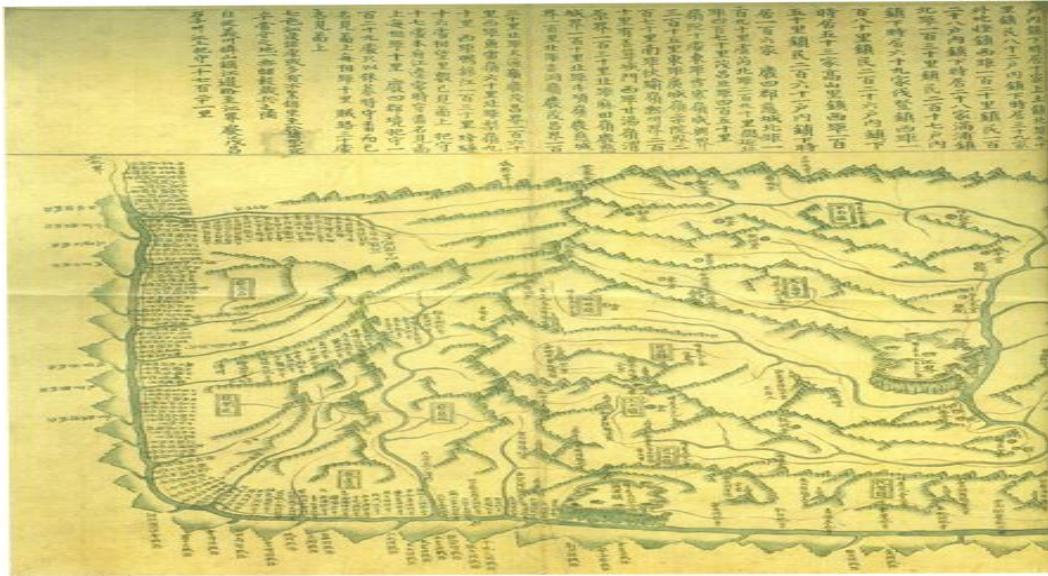
강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강역은 정확히 독로강 분수계와 일치한다. 행정구역상으로 강계는 평안북도 강계군 전체와 위원군 봉산면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자강도 강계시, 만포시, 시중군, 전천군, 장강군, 성간군, 용림군, 위원군 일부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강계의 읍성은 돌로 쌓은 석성이다. 강계읍성은 1436년(세종 18) 절제사 이열이 축성을 시작하였고 1555년(명종 10) 부사 박수린이 절반 정도를 완성하였고, 1566년(명종 21)에 부사 류한명에 의해 개축되었으며, 1739년(영조 15) 부사 김우철 때 현재의 규모로 완성하였다. 부성에서 가장 이름난 누정은 인풍루인데 성 내부에 세워졌고, 압록강변에 위치한 군사요충지에는 진과 보가 설

치되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진이 압록강변에 위치한 만포진이다. 이 진은 돌로 쌓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병마첨절제사가 주재하였던 곳이다. 만포진에는 세검정과 관덕정 및 민군정 등 유명한 정자가 있다. 만포진 외에도 지도에 보이는 많은 진보가 압록강 연안을 따라 집중 분포하고 있다.

이 지도의 두드러진 특색은 압록강을 따라 양안에 위치한 취락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점인데, 이는 지역이 전략요충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강계의 읍성은 돌로 축성되었고 그 둘레는 10,666보이다. 우물은 20개, 못은 2개이며, 9,011가구가 거주한다. 서울까지는 878리가 떨어져 있고, 평양까지는 120리 떨어져 있다. 창고는 23처가 있고, 내부에는 1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90리 떨어진 곳에는 80 가구가 거주한다. 금동에는 123가구가 거주하고, 노동만포는 130리 떨어져 있고, 23가구가 거주하며, 금동은 180리 떨어져 있고, 270가구 중 226가구가 150리 떨어진 곳에 곳에서 거주한다. 고산리에는 261가구가 거주한다.

마지막 제12쪽에는 강계와 7읍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설명이 상단에 기록되어 있다. 봉수는 16처, 파수는 17처, 마을의 부강을 위해서 압록강으로 북쪽으로 130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였다. 아이진에는 99가구가 거주하고, 인근의 산양회진에는 60가구, 경평보에는 8가구, 소파아포에는 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평양까지 695리가 떨어져 있고, 위군, 하군, 남군 등 고을을 성마다 설치하여 마을의 경계 주변에 무리를 지어 거주하며 관리토록 하였다. 파수는 적이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곳으로 50리마다 배치하였고, 험난한 산지에는 100리 떨어진 곳에 배치하였다. 지도에서는 당시 이 지역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거주가 금지되었지만 일종의 초소인 파수가 조밀하게 설치되어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7] 《清北邊城圖》 제11쪽 · 제12쪽.

彩色寫本. 生絹. 18世紀 後期. 18.4×44cm. 姜聲國 所藏.

압록강변에 있는 여러 진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중요한 7읍 강변주위에는 곡식과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폐사군지역에서부터 의주 강변로의 길이는 1,721리이다.

이렇게 《清北邊城圖》는 각 지역을 의주, 삭주, 창성, 벽동, 자산, 위원 및 강계를 설명하였고, 압록강 일대의 국경지대를 그린 군략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高麗重要處圖》의 구성과 내용

##### 1. 지도의 구성과 형태

《高麗重要處圖》<sup>89)</sup>는 총16폭으로 구성된 채색필사본 지도이다. 재질은 비단으로 되어있다. 강원도와 접하고 있는 동해안의 영해(寧海)부터 전라도와 접경인 하동에 이르는 연안의 전역과 연해 일대 섬들을 그린 지도로 전쟁에 참고할 목적으로 방어시설을 그린 지도이다. 《高麗重要處圖》는 총 16폭으로 제작되었으며, 각 폭의 길이는 세로 62cm, 가로 20.5cm, 전체 길이는 67.0×342.0cm이다. 전체 16폭 중 제1폭과 제14폭~제16폭은 지도가 없이 설명만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포구 이름, 포구별로 수용할 수 있는 선박의 수포, 포구에 따라 선박들이 피해야 할 바람의 방향, 포구간의 거리, 봉수, 남해에 위치해 있는 두 개의 큰 섬인 거제도과 남해도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각각의 군현은 사각형으로 그렸고, 봉수는 빨간색 점으로 표시하였다. 육로와 해로의 길은 붉은 선으로 표시했다. 경상도 전체 해안의 지형과 바람, 특히 선박의 운행과 관련된 정보를 정밀하게 묘사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

---

89) 《高麗重要處圖》는 乾隆 55 (正祖14, 庚戌, 1790) 7月, 강응환의 연령 56세, 通政大夫行 昌城都護府使를 재직당시 《高麗重要處圖》를 제작하였다.



**[그림 4-1] 《高麗重要處圖》의 전체 사진.**  
彩色寫本. 生絹. 18世紀 後期. 67.0×342.0cm. 姜聲國 소장.

## 2. 지도 내용의 분석

제1쪽에는 경상도 북쪽 영해부터 하동까지 경상도 전체 해양방어의 핵심부분과 섬의 역할, 풍향 등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남해에 있는 포구는 3곳으로 선창포는 10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피하는 바람이 없다. 곡포는 10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동풍을 꺼리고, 가화포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남풍을 꺼린다. 봉수는 4곳에 있는데 미조항봉, 금산봉, 원산봉, 소흘봉이다. 곤양에서부터 노량진까지는 5리 떨어져 있다.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거제도의 포구는 15곳이다. 선창포는 1,000여척을 수용할 수 있고, 남풍을 꺼리고, 양포는 100여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바람을 꺼리지 않고, 울포는 10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남풍을 꺼린다. 고다대포는 10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바람을 꺼리지 않는다. 구조라포는 10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남풍을 꺼리고, 지세포는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람을 꺼리지 아니하며, 옥포는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바람을 꺼리지 않는다. 농소포는 4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동풍을 꺼리고, 장목포는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람을 꺼리지 않고, 구조라포는 100척의 선박을 수용하고, 남풍을 꺼리며, 세포와 이포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바람을 꺼리지 않는다. 죽도포는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영등포는 100척의 선박을 수용하며, 남풍을 꺼린다. 칠천도 송포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바람을 꺼리지 아니하며, 두모포는 30척의 선박을 수용하고, 바람을 꺼리지 않는다. 거제의 봉수는 눌읍곶, 갈곶, 가라봉 3곳에 위치해 있고, 육지의 마지막지역인 고성은 유방으로부터 5리가 떨어져 있다.

영해 축산포에서 순흥의 죽령까지 270리 떨어져 있다. 동래에 있는 수영에서부터 강구까지, 강구에서부터 함양의 팔량령까지, 상주에서부터 분전현까지

는 각각 430리 떨어져 있다. 김산에서 추풍령까지 360리, 문경 조령까지 580리, 순흥 죽령까지는 620리 떨어져 있다.

통영 두령포부터 하동까지, 연곡부터 구례경계까지는 각 240리 떨어져 있고, 통영부터 함양 팔랑령까지 460리 떨어져 있다. 금산부터 추풍령까지 400리 떨어져 있고, 거제에서 문경까지는 590리 떨어져 있다. 안의에 90령은 호서호남 사이에 있는 산골짜기의 숨어있는 길은 기록하지 않았다. 육지 연해 지역으로부터 대마도까지는 480리라고 하지만, 순풍을 만난다면 아침에 배를 띄우면 점심에 도착해 연기를 피우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다. 제1폭 남해와 거제의 진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4-1] 《高麗重要處圖》 제1폭 남해, 거제의 진보

폭	군현	진보	기피풍향	선박(척)	봉수
제1폭	南海	船 倉 浦	-	100척	봉수 7처
		曲 浦	-	100척	
		加 火 浦	-	수십척	
	巨濟	船 倉 浦	남풍	1,000여척	
		梁 浦	-	100여척	
		栗 浦	-	100여척	
		古多大浦	-	100척	
		舊助羅浦	남풍	100척	
		知世浦	-	수백척	
		玉 浦	-	수백척	
		農所浦	동풍	40척	
		長木浦	-	수백척	
		細 浦	-	수십척	
		裡 浦	-	수십척	
		竹島浦	-	수백척	
		永登浦	남풍	100척	
		松 浦	-	수십척	
		豆毛浦	-	30척	

제2폭부터 제13폭까지는 경상도 연해에 위치한 각 군현의 위치와 형태, 포구, 해로 등이 그려져 있다. 제2폭에는 영해와 영덕이 위치해 있고, 제3폭에는 청하와 흥해, 제4폭에는 연일(延日)이 위치해 있다. 제5폭은 장기, 경주, 제6폭은 병영, 울산, 제7폭은 서생, 양산, 동래, 기장이 위치해 있다. 제8폭은 수영, 금산, 김해가 위치해 있다. 제9폭은 울포, 창원이 위치해 있다. 제10폭은 진해, 제11폭은 고성, 거제, 통영, 제12폭은 병영, 사천이 위치해 있다. 마지막으로 제13폭에는 하동, 곤양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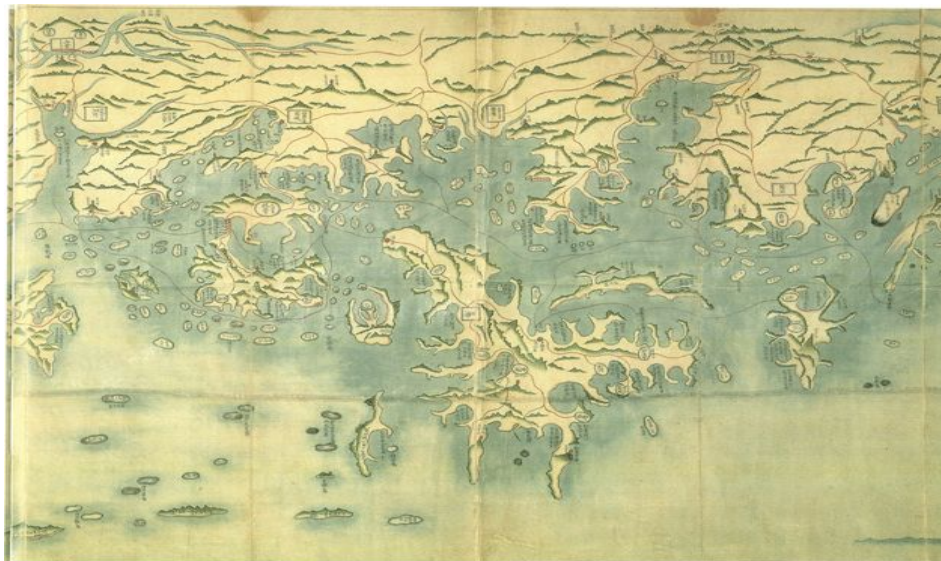
[그림 4-2] 《高麗重要處圖》 제1폭 ~ 제4폭.

彩色寫本. 生絹. 18世紀 後期. 62.0×20.5cm. 姜聲國 所藏.



[그림 4-3] 《高麗重要處圖》 제5쪽 ~ 제8쪽.

彩色寫本. 生絹. 18世紀 後期. 62.0×20.5cm. 姜聲國 所藏.



[그림 4-4] 《高麗重要處圖》 제9쪽 ~ 제12쪽.

彩色寫本. 生絹. 18世紀 後期. 62.0×20.5cm. 姜聲國 所藏.

제14폭부터 제16폭까지는 각 군현에 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제14폭에는 항해 시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가장 앞에 기록되었다. 대양에 삼일동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멀리 배를 띄울 사람들은 첫째, 가까운 선박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찾고 둘째, 육로와 가까운 거리를 찾고 셋째, 물살이 험하지 않는 곳을 먼저 안후에야 운행에 이득이 있을 것이다. 영해에서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포구인 축산포는 10여척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북동풍을 꺼린다. 거리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으며, 각 포구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고 기록해 놓았다. 봉수는 2처로 대수산봉, 광산봉이 있다. 영덕에는 선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봉수는 1처로 별반산봉이 있다. 청하도 선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봉수는 1처로 도산봉이다. 흥해도 선박을 수용할 수 없으며, 봉수는 1처로 칠포이고, 8~9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리고,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봉수는 2처로 오산봉, 지을봉이다.

연일은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포향포로 1곳이며 천여척을 수용할 수 있고, 남풍을 꺼리고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다. 포구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고 봉수는 2곳으로 봉수대동봉, 사화측봉이 있다. 장기도 1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고, 구포이포는 선박을 10척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린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고 봉수는 3곳으로 북길봉, 내성봉, 발산봉이 있다. 제14폭에 표시된 흥해, 연일, 장기의 진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4-2] 《高麗重要處圖》 제14폭 영해, 홍해, 연일, 장기의 진보

폭	군현	진보	기피풍향	선박(척)	봉수
제14폭	寧海	丑山浦	북풍	십여척	봉수 1처
		漆浦	동풍	8~9척	봉수 2처
	興海	-	-	-	-
	延日	-	-	1척	-
		浦項浦	남풍	-	봉수 2처
	長鬐	-	-	1척	-
舊包伊浦		-	10척	봉수 3처	

제15폭의 설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주에 위치해 있는 팔조창은 바람이 그치지 않고 험해서 잠시 동안 선박 1척만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고 봉수는 9곳으로 하서산봉, 독이산봉, 대치봉, 천룡봉, 소산봉, 첩호봉, 주사봉, 형상봉, 동악봉이 있다.

울산은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4곳으로 서생포는 300척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린다. 구개운포도 30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남풍을 꺼린다. 장생포는 30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람을 꺼지리 않고, 대화강포는 2~300척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서풍을 꺼린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고 봉수는 5곳으로 이길봉, 하산봉, 가리봉, 남대봉, 천례봉이 있다. 기장은 포구가 3곳으로 무지포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서풍을 꺼리고, 구두모포는 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향곳포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한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봉수는 2곳으로 아미봉, 남산봉이 있다.

동래는 포구가 7곳이다. 수영 선창포는 모래가 매년 퇴적되는데 수심이 수삼척이 안되며, 한 달에 보름과 그믐에만 운행할 뿐이다. 강 입구는 좁아서 선박이 1척만 수용이 가능하며 1척만 지나갈 수 있다. 부산포는 수천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람은 꺼리지 않는다. 왜관포는 7~8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남북풍을 꺼리고, 구서평포는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리고, 다대포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린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고 봉수는 5곳으로 응봉, 구봉, 황령봉, 계봉산봉, 간비오봉이 있다.

우측으로 가면 김해는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선창포는 1곳으로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있고, 바람은 없다. 물이 불었을 전후에는 선박이 이동하기에는 불리하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봉수는 3곳으로 생화야봉, 분산봉, 자암봉이 있다.

응천에는 선박을 4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안골포는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리고, 제포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리고, 풍덕포는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람을 꺼리지 않고, 천성마거리포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리고, 대항포는 5~6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서풍을 꺼린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봉수는 2곳으로 사화즉봉, 고산봉이 있다.

창원은 선박을 1곳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마산포이다. 마산포는 수천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람은 꺼리지 아니한다. 칠원은 선박을 4곳에서 수용할 수 있다. 구산포는 7~8척을 수용할 수 있고, 바람을 꺼리지 않는다. 수정포는 10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북풍을 꺼리고, 궁포는 4~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리고, 시궁포는 4~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남풍을 꺼린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진해는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2곳이다. 통창포는 선박을 수백척을 수용할 수 있고, 동풍을 꺼리고, 갈포도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람을 꺼리지 않는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으며, 봉수는 3곳으로 갈봉, 곡산봉이 있다. 제15쪽에 수록된 경주~진해의 진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4-3] 《高麗重要處圖》 제15폭 경주~진해의 진보

폭	군현	진보	기피 풍향	선박(척)	봉수
제15폭	慶州	-	-	1척	봉수 9처
	蔚山	西生浦	동풍	300척	-
		舊開雲浦	남풍	300척	-
		長生浦	-	300척	-
		太和江浦	서풍	2~300척	-
	機張	武知浦	동서풍	수십척	봉수 2처
		項串浦	-	수십척	-
		舊豆毛浦	-	10척	-
	東萊	水營船艙浦	-	1척	봉수 5처
		倭館浦	남북	7~8척	-
		舊西平浦	동풍	수백척	-
		多大浦	동풍	수십척	-
	金海	船艙浦	-	1척	봉수 3처
		安骨浦	동풍	수백척	-
		風德浦	-	수백척	-
		天城磨巨里浦	동풍	수십척	-
		大項浦	서풍	5~60척	-
	昌原	馬山浦	-	수천척	-
	漆原	龜山浦	-	7~8척	-
		水晶浦	북풍	100척	-
		宮浦	동풍	4~50척	-
		紫宮浦	남풍	4~50척	-
	鎭海	統倉浦	동풍	수백척	-
架浦		-	수백척	-	

마지막 제16폭의 설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성현에는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10곳이다. 적미포는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리고, 죽림포는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북동풍을 꺼리고, 두룡포는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좌우로 바다가 통하고, 동서풍을 기피한다. 삼천포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리고, 갈망포

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리고, 당포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남풍을 꺼린다. 굴항포는 겨우 1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좌우로 바다가 통하고, 동서풍을 꺼린다. 우포는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하고 서남풍을 꺼리고, 죽도포는 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람을 꺼리지 않는다. 구소비포는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하고, 서풍을 꺼린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봉수는 5곳으로 미륵산봉, 우산봉, 고산봉, 천왕점봉, 좌이산봉이 있다.

진주는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2곳이다. 정량도거망포에 수백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북풍을 꺼린다. 대동포는 5~60척의 선박을 수용하며 북동풍을 꺼린다. 강 입구에 있는 진처는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고, 봉수는 3곳으로 갑산봉, 망진봉, 정량대방산봉이 있다.

사천에는 1곳에서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데, 강주포는 수천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린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으며 봉수는 1곳으로 안저봉이 있다. 곤양은 1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니, 선창포로 수십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동풍을 꺼린다. 리수는 지도상에 표시해 두었고, 각 포구 가운데에는 빨간색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동쪽에 있는 남해가 반응강지지포로 통하고 있고 봉수는 없다.

하동에 있는 섬진강 임해에는 특별히 선박이 머무를 만한 곳은 없다. 좌측의 영해 축산포에서 영일 포항포까지 육로는 140리 수로는 100리, 영일 포항포에서 경주 수용포까지 육로 130리 수로 100리, 경주 수용포에서 다대포까지 육로 220리 수로 190리, 좌연의 다대포에서 창원 마산포까지 육로는 120리 수로는 190리, 마산포에서 갈포까지 육로는 90리 수로는 170리, 갈포에서 통영 두룡포까지 육로는 50리 수로는 70리, 좌두룡포에서 당포까지는 육로 20리 수로 50리, 좌당포에서 사천강주포까지 육로 120리 수로 100리,

강주포에서 동라팔항은 육로 90리 수로 백리의 거리이다.

[표 4-4] 《高麗重要處圖》 제16폭 고성~곤양의 진보

폭	군현	진 보	기피 풍향	육로	수로	선박(척)	봉 수	
제 16폭	固城	積 珎 浦	동풍	-	-	수백척	봉수 5처	
		竹 林 浦	북동풍	-	-	수백척	-	
		頭 龍 浦	동서풍	-	-	수백척	-	
		三 千 浦	동풍	-	-	수십척	-	
		芻 望 浦	동풍	-	-	수십척	-	
		唐 浦	동남풍	-	-	수십척	-	
		堀 項 浦	동서풍	-	-	1척	-	
		羽 浦	서남풍	-	-	수백척	-	
		竹 島 浦		-	-	100척	-	
		舊所非浦	서풍	-	-	수십척	-	
	晉州	赤梁島巨望浦	북동	-	-	수백척	봉수 3처	
		大 同 浦	북동풍	-	-	5~60척	-	
	泗川	江 洲 浦	동풍	-	-	수천척	봉수 1처	
	領海	丑 山 浦	-		140리	100리	-	-
		嶺日浦項浦	-		130리	100리	-	-
		慶州水營浦	-		220리	190리	-	-
		多 大 浦	-		120리	190리	-	-
		馬 山 浦	-		90리	170리	-	-
		芻 浦	-		50리	70리	-	-
		左頭龍浦	-		20리	50리	-	-
		左 唐 浦	-		120리	100리	-	-
昆陽	江 洲 浦	-		90리	100리	-	-	
	-	-		-	-	1척	-	
	船 艙 浦	동풍	-	-	수십척	-		



[그림 4-5] 《高麗重要處圖》 제13쪽 ~ 제16쪽.

彩色寫本. 生絹. 18世紀 後期. 62.0×20.5cm. 姜聲國 所槪.

좌우연 총합 육로는 980리, 수로는 1,020리, 경상도의 좌측 연안 즉 경상도 동해안은 선박이 머무를 수 있는 포구에도 석벽과 절벽이 있다. 바람을 만나면 선박이 머물렀던 곳으로 되돌아 가야한다.

이상으로 《고려중요처도》의 총 제16쪽의 지도 내용과 설명을 정리해 보았다. 18세기 후반 강응환이 제작한 《청북변성도》와 《고려중요처도》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군사적 목적인 의미를 가진 관방지도로 각 군현은 사각형으로 나타냈고 영해와 연안의 경계를 정확하게 그렸다. 둘째, 각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지명, 즉 군현, 진, 보 등을 위주로 작성된 관방지도이고, 크기나 지명들을 보아도 더욱 사실적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高麗重要處圖》는 자연적인 하천이나 해안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처럼 18세기 후반 강응환이 제작한 《고려중요처도(高麗重要處圖)》는 전해오는 관방지도들 보다는 각 지역들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어체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

## V. 결론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를 지낸 물기재 강응환이 제작한 《청북변성도(淸北邊城圖)》와 《고려중요처도(高麗重要處圖)》의 각 군현과 지도의 형태, 크기, 지형, 도로, 지명, 촌락, 군사적 시설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의 관방지도의 발달과정을 검토하고, 18세기의 사회적 변화와 대외관계를 통해서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강응환의 관방지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과 18세기 후반에 강응환이 제작한 관방지도에 대한 지도학적인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후기에는 청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7세기 조선의 대청인식과 북방인식 변화가 관방정책 변화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관방정책의 새로운 인식은 평안도와 함경도지역까지 더해져 관방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관방지도가 제작되었다. 강응환은 영고탑회귀설로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압록강변의 평안도를 중심으로 제작한 《청북변성도》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군사적으로 제1방어선이라 할 수 있는 동해안의 영해부터 전라도와 접경한 경상도의 주요 연안의 전역 일대를 중심으로 제작한 《고려중요처도》를 제작하였다. 강응환의 관방지도는 각 군현의 위치와 구조, 군사적 기능, 촌락, 경작지 등을 매우 상세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강응환의 관방지도들은 창성부사와 경상좌도수군절도사라는 현직에 있던 최고 담당자가 제작한 원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영조대의 《西北彼我兩界萬里之圖》 《西北界圖》 《盛京輿地全圖》 등과 같이 조선의 국경지대와 만주일대를 개괄적으로 그린 군사지도로부터 한 단계 진전되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군사적 요충지를 그린 미시적 지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도들이 조선시대에 많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현전하는 지도가 매우 귀하기 때문에 강응환의 지도들은 관방지도의 역사에서, 그리고 조선 후기의 군사정책과 관방인식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강응환이 제작한 《淸北邊城圖》와 《高麗重要處圖》가 조선시대 후반에 제작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역사상 관방지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朝鮮王朝實錄 국역본; <http://sillok.history.go.kr/>

南九萬, 『藥泉集』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1654).

이덕무, 『청장관전서』, 도서집성,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 9책.

李頤命, 『疎齋集』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一簣古 819.530).

강석화, 1996, "조선후기 함경도의 지역개발과 북방영토의식",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고승희, 1995, "18 · 19세기 함경도 지역의 유통로 발달과 상업활동", 이화여대 대학원석사학위논문.

김혜자, 1982, "조선후기 북변월경문제연구", 이대사원, 18.19합집,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회, pp.57-81.

배우성, 1996, "18세기 관찬지도 제작과 지리 인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배우성, 1996, "조선후기 확대된 영토의식과 북방지역 고지도에 나타난 영토영해의식", 역사비평, 37, 역사비평사, pp.349-365.

배우성, 1997, "17.18세기 청에 대한 인식과 북방영토의식의 변화", 한국사연구, 99, 한국사연구회, pp.305-327.

서인달 외, 1989, 중국통사, 청년사.

서정철, 1991, 서양 고지도와 한국, 대원사.

송준호, 1987, 조선 사회사 연구, 일조각.

양보경, 1997, "조선시대의 고지도와 북방인식," 지리학연구, 제29집, 한국지리교육학회, pp.103~122.

양보경, 2005, "국토의 수호자, 관방지도" 測量 5·6, 대한측량협회, pp.44-51.

양태진, 1984, “민족지연으로 본 백두산영역 고찰”, 백산학보, 제28호,  
pp. 95-145.

이민웅, 1995,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론, 34,  
pp. 19~22.

이 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정옥자, 1985, “대보단 창설에 관한 연구,” 邊太燮博士 華甲紀念 史學論  
叢, 삼영사, pp.527-550.

한영우, 1989,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한영우, 1999,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

홍영희, 2006, 간도론, 삼지출판사.

## ABSTRACT

### A Study on Maps for Defence and Borderlands

Produced by Kang Eung-hwan in the Late 18th Century

**Kim, ryu-kyoung**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fter Jurchen tribe (女眞) brought about two wars against Joseon dynasty in Korean peninsula in the first half of 17th century (Jeongmyo-horan and Byeongja-horan), and conquered China to establish Ching dynasty in 1644, there were a chain of revolts rising around every corner of Ching, while Joseon was thronged with a rumor of potential crisis resulting from Ching dynasty seeking to return to Manchuria. That is why Joseon dynasty began to pay special attentions to identify its frontier adjacent to Ching Empire (especially Manchuria) and relevant geographic information. In Joseon dynasty, maps for defence and borderlands were already prepared in the early days of dynasty, and many barriers based on maps prepar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were installed to defend vulnerable northern frontier of Joseon from the force of Ching. In the 17th century, Joseon's changing standpoints

toward Ching and northern frontier had influences even on its national frontier policies. Moreover, a new paradigm shift of Joseon's national frontier policies led to expansion of frontier installations in Pyeongan and Hamgyeong province, while there were a lot of national defence maps prepa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geographic configuration and content of '*Cheongbuk Byeonseong-do* (清北邊城圖, Map of Frontier Fortresses North of Cheongchon River)' and '*Goryeo Jung-yocheo-do* (高麗重要處圖, Coastal Map of Gyeongsang Province)' which were 2 national frontier maps authored by Mulgijae Kang Eung-hwan (姜膺煥, 1735~1795) who was appointed a navy commander in charge of Western Gyeongsang Provincial Fleet in the late 18th century. To meet the goal, this study made further analysis on topography, configuration, scale, place names, villages, military installations and more which are expressed in the said maps. In addition, it examined Kang's national frontier maps prepared in the late 18th century in terms of Joseon's social change and diplomacy in 18th century. It is particularly notable that Kang's national frontier maps demonstrate a prototype of military mapping conducted in his capacity of incumbent Changseong county governor as well as navy commander of Western Gyeongsang Provincial Fleet. In addition, his national frontier maps have implications in the sense that they evolved a step forward from conventional military maps outlining Joseon's northwest frontier and Manchuria region (for example, *Seobukpiyanggye Mallilam-jido*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Seobukgye-*

do (西北界圖), Seonggyeong Yeoji-jeondo (盛京輿地全圖), etc prepared in the era of King Yeongjo), and were also microscopic maps depicting very concrete and detailed military strategic locations of northern national frontier in the late 18th century when King Jeongjo ruled Joseon dynasty.